

| 국어 2-1 |

정답과 해설

천재 정호웅 교과서

1 국어	02
2 서술형 모아보기	35
3 시험 대비 문제집	45
4 실전 모의고사	57

01 보는 이와 말하는 이

01 시의 화자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08

- 1 ③ 2 주제 3 ①
- 1 시의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 시의 화자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정서, 태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3 제시된 시의 화자는 '엄마야 누나야'라고 부르는 말투 등으로 보아 어린아이임을 알 수 있다.

● 소단원 체크 p.09

- 1 지 2 ④ 3 ② 4 ②
- 1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유'의 '지'는 '제'의 사투리로, 화자인 '나'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2 이 시의 화자는 손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과 바라는 점을 말하고 있을 뿐, 손님과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 3 1행~4행에서 딸기가 짐차에 실려 먼 길을 와서, 낮은 거리를 다니며 딸기를 사갈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4 ㉠에서 화자인 딸기는 자신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노동으로 자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소단원 핵심 정리 p.10

화자, 딸기, 가치, 사투리, 재미

학습 활동 엿보기 p.11~18

학습활동 이해 1 딸기, 농부, 가치 2 사람, 상인, 주제, 의인화
학습활동 적용 교실, 보물찾기, 강아지들, 학생, 시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1~18

- 1 ③ 2 ③ 3 ⑤ 4 농작물의 가치 5 ③ 6 ② 7 ⑤ 8 ④
 9 사람 10 ⑤ 11 ⑤ 12 ③ 13 ② 14 ⑤ 15 ② 16 사
 금 17 ④ 18 학생들이 떠올린 글감 19 ④ 20 ⑤ 21 ④
 22 ① 23 ⑤ 24 ⑤ 25 ⑤ 26 ④ 27 ⑤ 28 ⑤

- 1 이 시의 화자는 의인화된 딸기이다.
- 2 화자가 '목마름은 이냥저냥 견딜 수 있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유',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땀어유'라는 시구로 보아, 화자는 자신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란 존재이므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4 이 시의 화자는 짐차에 실려 팔리기를 기다리는 딸기로, 손님들이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라고 있다. 즉, 사람들이 농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 5 이 시의 화자는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유'에서 드러나듯 시속에서 자신이 겪은 바와 생각한 바를 말하고 있다.
- 6 이 시에서는 사투리를 사용하여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한편, 신선한 느낌과 재미를 더하고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7 <보기>의 화자는 '단맛이 무르다느니 하진 말아요', '딸깁깁 후하게 쳐주세요'와 같이 바라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8 <보기>의 화자는 딸기를 정성 들여 키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값에 팔리기를 바라고 있다.
- 9 <딸기>의 화자는 짐차에 실려 온 딸기이고, <보기>의 화자는 딸기를 파는 상인이다.
- 10 <딸기>의 화자인 딸기와 <보기>의 화자인 상인 모두 딸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 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 11 <딸기>에서 화자는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에 맞는 제값을 치러 주기를 바라고 있다.
- 12 시의 화자의 특성에 따라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 13 이 시에서는 시를 쓰는 학생들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한편, '~처럼', '~일까'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14 이 시의 화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 짓기를 권유하고 아이들이 시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선생님이므로, 아이들이 쓴 시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15 [A]는 시를 써 내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나비', '강아지'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다.
- 16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에서 학생들이 쓴 시를 '사금'에 빗대고 있다.

- 17 ①, ②, ③, ⑤는 시를 쓰는 학생들을 빗댄 표현이지만, ④는 학생들이 시를 짓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 18 화자는 학생들이 시를 짓기 위해 글감을 떠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학생들이 가져온 글감을 ‘별꽃, 구슬, 흥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 19 이 시의 화자는 시를 쓰는 학생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선생님이다. 이 시에서 겉으로 학생들을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0 이 시는 학생들이 시를 짓는 모습을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한 시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애정 어린 시선과 따뜻한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 21 모둠이 함께 엮을 시집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함께 엮을 시집의 주제를 정한 뒤 그에 맞게 읽을 시집을 정해야 한다.
- 22 주제에 맞는 시집을 정할 때는 도서관이나 추천 도서 목록, 추천 등을 활용하여 제목이나 화제 등이 주제와 관련 있는 시가 들어 있는 시집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평소 좋아하던 시집은 주제에 맞는 시 읽기와 관련이 적다.
- 23 시의 화자는 시인 자신이 아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다. 따라서 시인의 말투가 화자에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 24 이 시의 화자는 아빠와 산을 오르며, 산꼭대기에서 라면을 먹을 생각에 힘을 내고 있다. 아빠와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5 이 시의 주제는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26 모둠 시집의 주제는 시를 엮기 위해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평은 시에 대한 감상 평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27 모둠 시집의 제목은 처음에 정한 주제를 반영하며 지어야 한다.
- 28 주제에 따라 엮은 시집에서 시를 감상할 때에도 시의 화자나 표현 방법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 **우리말 특독**

p. 19

1 단, 축, 툇, 장, 켈레 2 깨끗이, 나란히, 솔직히, 소복이

확인문제

01 (1) 단 (2) 장 (3) 켈레 (4) 축 02 ②

- 2 ‘가까이’는 ‘한 지점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를 뜻하는 단어로 ‘이’로만 소리가 난다.

소단원 종합 문제

p.20~21

- 01 ② 02 ② 03 ③ 04 ③ 05 딸기는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노동(수고)을 통해 자란 가치 있는 존재이다. 06 ④ 07 ② 08 ⑤ 09 강아지, 꼬마들 10 ④

-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짐차에 실려 온 ‘딸기’로, ‘손님’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 말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닌 딸기이다. ③ 화자가 오십 리 길을 실려 와 낮은 거리를 다녔다고 했으나 공간의 이동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 화자가 의인화된 딸기이지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2 [A]에서 화자는 먼 길을 짐차에 실려 와 낮은 거리에서 자신을 살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때 당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03 이 시의 제목이 ‘딸기’인 것을 통해 화자가 딸기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정체를 숨겼다고 볼 수는 없다.
- 04 <보기>에서도 ‘이것저것 만지작만지작하면서 ~ 하진 말아 요’, ‘딸기값 후하게 쳐주세요’와 같이 화자가 바라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5 화자는 자연의 도움을 뜻하는 ‘하느님 손’과 농부의 노동 또는 수고를 뜻하는 ‘농부 손’을 고루 탔다고 말함으로써 딸기가 자연과 농부의 도움을 통해 자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구의 의미로 자연과 농부의 도움을 제시함.	2점	총 3점
딸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제시함.	1점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추어 적지 않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6 이 시는 화자가 청자(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드러날 뿐 화자와 청자의 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오아’라는 말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③ ‘강아지처럼’, ‘꼬마들 처럼’ 등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처럼’, ‘-일까’, ‘있다’ 등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학생들은 시를 써 보자는 선생님의 말에 인상을 찌푸리고 ‘으아’라며 비명을 질러냈으므로, 시 창작 과제를 듣고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08 이 시의 화자는 학생들이 시를 쓰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생님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를 짓는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9 글감을 찾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유법으로 나타낸 시구는 ‘떡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이다.
- 10 ㉠은 학생들이 시를 쓸 때 내용을 고치며 지우개질을 한 지우개 가루를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로 끝내는 시술형 실전 문제 p.22~23

1 사람, 시적 상황, 주제 2 화자는 먼 길을 짐차에 실려 온 딸기로, 낮선 거리에서 자신을 사갈 사람을 찾고 있다. 3 화자가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의 주제는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4 이 시의 화자는 사투리를 쓰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딸기가 사투리를 써서 유쾌하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1 이 시의 화자는 의인화된 ‘딸기’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함께 바라는 바를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자의 특성을 통해 시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2 1~4행에서 화자인 딸기가 먼 길을 짐차에 실려 와 낮선 거리를 다니며 자신을 사갈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가 딸기임을 밝힘.	2점	총 5점
1~4행에 나타난 두 가지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3 마지막 행에서 화자가 손님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말하며 농작물의 가치나 손님이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란다는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가 바라는 바가 드러나는 시구를 찾아 씀.	3점	총 7점
시의 주제로 ‘농작물의 가치’ 또는 ‘손님이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람’과 관련한 내용을 씀.	4점	
주어진 <조건>에 맞는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음.	-1점	

- 4 <보기>의 화자는 이 시의 화자와 달리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다. 이로 인해 <보기>에서는 유쾌하거나 향토적인 분위기가 덜 느껴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시는 사투리를 사용했으나 <보기>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제시함.	4점	총 10점
이 시는 <보기>와 달리 향토적이고 유쾌한 분위기가 느껴짐을 서술함.	6점	
<조건>에 맞게 각각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거나,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이 시와 <보기>의 화자의 특징 파악하기 ▶ ‘실려 왔어유’, ‘신고 왔어유’ 등의 표현을 바탕으로 화자의 특징 확인하기
- ② 화자가 사용하는 말의 차이점 파악하기 ▶ ‘-어유’, ‘-어요’에서 알 수 있는 차이점 정리하기
- ③ 화자의 특성에 따른 분위기 차이 정리하기 ▶ 이 시를 기준으로 <보기>와의 차이점 서술하기

02 소설의 시점과 서술자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24

1 ④ 2 ③ 3 3인칭 전지적 시점

- 1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
- 2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 주변 인물로, 주인공에 대해 관찰하여 전달할 뿐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3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모두 전달하고 있으므로 3인칭 전지적 시점임을 알 수 있다.

- 1 ④ 2 ② 3 ⑤ 4 ① 5 감자 6 ④ 7 ② 8 ④ 9 ④
 10 감자를 거절했다. 11 ② 12 ④ 13 ④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② 20 ③ 21 닭싸움 22 ② 23 ⑤
 24 ①, ③ 25 ② 26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
 닭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27 ③ 28 ⑤ 29 ② 30 ⑤ 31 ③

- 1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위치하는 '나'이자 주인공으로 자신이 겪은 일과 자신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에 대해 모두 꿰뚫어 보고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2 '오늘도 또 우리 수닭이 막 쪼이었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냈을 것이다.'로 보아, 점순이가 자꾸 자기네 닭과 '나'의 집 닭을 싸움 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나)에서 '나'는 계속해서 닭싸움을 붙여 자기네 닭을 괴롭히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 4 '나홀 전' 사건이 제시되는 것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점순이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다 '굶은 감자 세 개'를 내밀고 얼른 먹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6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내밀며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하자 그 말에 기분이 상해 감자를 거절하였다.
- 7 (라)에서 점순이는 자신이 호의를 담아 내민 감자를 '나'가 단번에 거절하자 얼굴이 빨개지다가 눈물까지 보였다. 이를 통해 무안함과 속상함, 부끄러움 등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안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8 평소 동리 어른에게 하는 말이나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 아니라 한 것 등으로 보아 점순이의 성격이 소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9 '나'는 점순이에 대해 당돌하고 활발한 마름네 딸이고, 가까이 지내다 소문이 나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0 (바), (사)에서 '나'와 점순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나'가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거절한 일이다.
- 11 (바)로 보아 점순이는 감자를 건넨 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나'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에서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사), (아)에서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때렸음을, (자)에서 '나'에게 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나'의 집 씨암탉은 심하게 맞아 골병이 들었다. ② '나'는 집 바깥에서 울타리를 쳤다. ③ 점순이는 직접 서운함을 말하지는 않고 '나'를 괴롭혔다. ⑤ '나'는 점순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점순이에게 화를 냈다.

- 13 '나'는 마름 집 딸인 점순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와 싸울 수도 없어 울타리를 치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
- 14 ㉠과 같은 비속어를 통해 사실성과 현장감, 해학성을 더해 주는 효과는 있으나 향토성과는 관련이 없다.
- 15 이 글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와 이에 화가 난 '나' 사이의 외적 갈등이 주되게 나타난다.
- 16 ㉠에서 '나'는 욕을 먹으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분하고 억울해하고 있다.
- 17 '나'는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믿고 닭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 닭에게 고추장을 먹였다.
- 18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힘이 세진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네 닭이 점순네 닭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고추장 덕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나'의 순진하고 어수룩한 성격이 드러난다.
- 19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하며 자신의 닭과 점순네 닭을 싸움 붙인 '나'는 자신의 닭이 평소처럼 점순네 닭에게 쪼이자 실망하고 아쉬워하다, 자신의 닭이 점순네 닭을 쪼자 신나고 고소해한다.
- 20 '나'는 자기네 닭이 닭싸움에서 지자 고추장을 먹인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고추장을 더 먹이지 않고 급하게 싸움을 붙인 것을 후회하였다.
- 21 이 글에서는 '나'의 집 수닭과 점순네 수닭의 닭싸움 장면에서 시작하여 과거 회상을 제시한 뒤 닭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22 '나'는 자기네 닭이 점순네 닭에게 쪼여 고통받는 것을 막으려고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있다. 자기네 닭의 고통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중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 23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는 '부리나케'의 의미이다. '상동경동'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강대강 일을 하는 모양'을 의미한다.
- 24 ㉠에서 점순이는 '나'의 집 닭을 집어내다가 자기네 닭과 싸움을 붙여 놓고 호드기를 붙고 있다. 이는 '나'를 약 올리고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25 이전까지 '나'는 점순이에 대해 일 잘하고 얼굴 이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갈등을 겪으며 점순이를 미워하게 되었다.
- 26 자기네 닭이 점순네 닭에게 당해 빈사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된 '나'가 점순네 닭을 단매로 때려 었어 죽이고 만 것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 27 '나'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점순네 닭을 때려서 죽게 만든 뒤 '누 집 닭'인데 때려죽이냐는 점순이의 말을 듣고 이성을 찾는다. 즉, '나'는 이 말을 듣고 마름네 닭을 죽인 일로 소작농인

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을 뿐 점순이에 게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그에 대해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8** ‘나’는 점순네 닭을 죽인 일로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두려워 우는 것이므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 후회되어서 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일일 뿐 점순네 집에서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 29** ㉠에서는 점순이가 ‘나’를 괴롭힌 것이 자신의 관심을 무시하며 감자를 거절했기 때문임이 드러난다. 즉 ㉠은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 있다.
- 30** ‘나’는 점순이와 동백꽃 속에 파묻힌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을 것이다.
- 31** ‘나’와 점순이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 모습은 두 사람의 사랑을 감각적, 낭만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에 점순이를 찾는 소리에 두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애상적’은 ‘슬프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이 글에 나타난 결말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교과서 날개 문제

p.26~32

1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점순이의 말에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다. **2**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감자를 주었는데 ‘나’가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 호의가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 ‘나’가 감자를 받지 않아 당황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3** 점순이는 마름 집 딸인데, ‘나’와 점순이가 붙어 다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농사지를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나’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다. / 자신의 호의를 ‘나’가 거절한 것에 분풀이하고 싶기 때문이다. **5**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서이다. /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애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 점순네 수탉과 싸워 이길 것을 기대하며 고추장을 먹었다. **7**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이다. /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8** 농사지를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9** 점순이는 ‘나’가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생각에 기뻐할 것이다. ‘나’는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겠다는 점순이가 고마웠을 것이다. / ‘나’는 갑자기 점순이와 동백꽃 속으로 쓰러져서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핵심 포인트

p.25~32

핵심 포인트

- | | |
|---------------------|--------------------|
| 01 주인공, 닭싸움 | 02 관심, 눈치 |
| 03 욕, 외적 | 04 고추장, 닭싸움 |
| 05 호드기, 때려죽임 | 06 동백꽃, 낭만적 |

소단원

핵심 정리

p.33

주인공, 안, 웃음, 갈등, 동백꽃

학습

활동 엮보기

p.34~37

학습활동 이해 1 관심/애정, 관심/애정, 미움, 동백꽃 **2** ‘나’, 좋아하는, 눈치, 해학적

학습활동 적용 1 점순이 **2** 해학적인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34~37

- 1** ① **2** ④ **3** 동백꽃 **4** ③ **5** ① **6** ⑤ **7** ④ **8** ③ **9** ⑤
10 ⑤ **11** ④ **12** 3인칭 전지적 시점 **13** ④ **14** ④ **15** ④

- 이 글에서 ‘나’와 점순이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이 된 사건은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일이다.
- 닭싸움 때문에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나’는 닭을 때려죽인 후에도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으므로 닭싸움으로 인해 ‘나’가 자신에 대한 점순이의 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와 점순이가 함께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는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며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이 글은 동감내기인 ‘나’와 점순이 사이의 풋풋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 이 글의 서술자 ‘나’는 이야기 안에 있는 주인공이다.
-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감자를 건넨 것이다.

- 7 (나)에서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점순이의 말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점순이의 애정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8 (나)에서 점순이는 그동안 '나'를 괴롭힌 것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임을 드러내며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 주고 자신에게 잘 대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 9 이 글의 '나'는 자신의 속마음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다른 인물인 점순이의 속마음은 알지 못하며 점순이의 말과 행동만을 전달할 뿐이다.
- 10 이 글의 '나'는 순박하고 어수룩한 성격으로 독자들은 알고 있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띠게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② 이 글에 '나'의 속마음과 행동이 대비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④ '나'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여 친근감이 느껴진다.

- 11 서술자가 '나'의 집 수탉으로 바뀌면서 주인, 즉, '나'의 속마음 또한 서술자가 직접 알지는 못하게 되었다.
- 12 (나)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꿰뚫어 보고 전달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 13 이 글의 해학적 분위기는 어수룩하고 둔한 '나'가 점순이의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이야기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나'와 점순이를 관찰한 내용만을 전달하면 해학적 분위기는 줄어들 것이다.
- 14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더라도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며 하는 말이 같다면 '나'가 감자를 거절하는 사건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 15 서술자의 특성에 따라 소설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설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말 **특독**

p.38

1 최서은 2 ① 행주치마 ② 마름 ③ (가로) 열김, (세로) 열리다 ④ 대거리 ⑤ 동리 ⑥ 치빠다 ⑦ 실떡하다 ⑧ 서술

확인문제

01 ㄱ. 부쳐 ㄴ. 붙여 02 (1) ㄷ (2) ㄱ (3) ㄴ (4) ㄹ

- 1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저냐, 전병(煎餅)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듦다.'를 뜻하는 단어는 '부치다'이고, '맛탕이 떨어지지 않게 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붙이다'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p.39~41

01 ⑤ 02 ② 03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했다. 04 ⑤ 05 ⑤ 06 ③ 07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08 ⑤ 0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어수룩하고 둔하며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했다.

- 01 이 글은 1930년대 강원도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마름이나 소작농의 관계가 나타나 있으나 농촌 노동자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2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위치한 주인공 '나'이다. 따라서 점순이의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지만 주변 인물은 아니다.
- 03 (가), (나)에는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다)로 보아 그 원인은 점순이가 '나'에게 내민 감자를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4 (나), (라)에서 '나'가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눈치 채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 05 점순이는 마름 집 딸인데, '나'와 점순이가 붙어 다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농사지를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점순이와 붙어 다니지 말라고 주의권을 준 것이다.
- 06 점순이는 '나'에 대한 미움으로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에게 욕을 하는 한편 계속해서 닭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보아 영악하고 집요한 성격이다.
- 07 (가)~(다)에 나타난 '나'와 점순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라), (마)에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 08 서술자가 '나'에서 '나'가 기르는 수탉으로 바뀌어 수탉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수탉 또한 이야기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술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
- 09 ㉠에서 '나'가 묵묵히 서 있게 된 것은 잠깐 점순네 닭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던 자신의 닭이 다시 점순네 수탉에게 쫓여 짙 짙 못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 10 (다)에서 '나'는 점순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채로 일단 동의하고 있을 뿐 점순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11 '나'와 점순이가 노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는 장면은 둘의 화해와 사랑의 시작을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암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12 이 글은 '나'가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전달한 것을 바탕으로 점순이의 심리를 짐작하며 읽어야 하지만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13 ㉠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무언가에 떠다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한 '나'의 어수룩하고 둔한 면모가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함을 씀.	2점	총 4점
어수룩함, 둔함,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한 등의 특성 중 두 가지를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기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42~43

1 안, 주인공, '나' 2 점순이는 감자를 주며 '나'에 대한 관심을 전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따라서 ㉠에는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 달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점순이의 의도나 생각을 직접 드러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나'가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순박한 느낌이나 해학적인 분위기가 덜하게 된다. 4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는 것이나 점순이가 하는 말에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어리숙하며 눈치가 없고 둔하다. 이러한 서술자의 특성으로 인해 점순이의 속 마음을 상상하며 읽게 되며, 소설 전체에 해학적인 분위기를 더해 준다.

- 1 이 글은 이야기 안에 있는 주인공 '나'가 자신이 보고 생각한 것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 2 (가)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애정의 표현으로 건넨 감자를 거절당했다. 이후 점순이는 (나)에서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서 감자를 준 것이 관심과 애정의 표현임을 씀.	3점	총 5점
㉠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었음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3 이 글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순이의 말과 행동의 의도가 직접 드러나게 되면서 순박한 느낌이나 해학적인 분위기가 덜하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서술자가 점순이로 바뀌면 점순이의 의도나 생각이 직접 드러나게 됨을 서술함.	3점	총 7점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 해학적인 분위기가 덜하게 됨을 서술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순박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점순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신이 추측한 대로 서술하고 있어 소설 전체에 해학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와 (나)에서 '나'의 어리숙하고 눈치 없는 모습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제시함.	3점	총 10점
서술자가 어리숙하며 눈치가 없음을 제시함.	3점	
서술자의 설정 효과 두 가지를 서술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가), (나)에서 서술자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대해 보이는 반응 찾기
- ② (가), (나)에서 알 수 있는 서술자의 특성 정리하기 ▶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특성 정리하기
- ③ 서술자의 특성이 가져오는 효과 파악하기 ▶ (가), (나)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이 소설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기

디지털 창의활동

p.44

확인문제 1 ④

- 1 사물이나 동물의 시선으로 만드는 계시물이므로 사진 또한 말하는 이로 정한 대상의 시선에서 찍는 것이 적절하다.

한 걸음 더

p.48

확인문제 1 ② 2 ③ 3 ③ 4 ⑤

- 1 이 글은 이야기 안의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인 코르니유 영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③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하며 코르니유 영감님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 이 글의 '나'는 코로나 영감님의 비밀, 즉 풍차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빵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코로나 영감님을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밀을 가지고 찾아갔다. 비밀이 밝혀진 후 코로나 영감님을 이해해 주며 도우려 했을 뿐 비밀을 지켜 주려 한 것은 아니다.
- 3** '나'의 아들이 코로나 영감님의 방앗간을 찾아가는 것은 영감님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손녀 비베트와의 결혼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이다.
- 4** 코로나 영감님은 사람들에게는 일감이 들어와 밀가루를 빵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일감이 없어 거짓으로 밀가루를 빵고 나르는 척을 해 왔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49~50

- 01** 화자 **02** (1) × (2) ○ (3) ○ (4) × **03** 딸기, 가치 **04** ㉠, ㉡ **05** 사람, 사투리, 손님, 자연, 향토적, 농작물 **06** 선생님 **07** (1) ㉠, ㉡, ㉢ (2) ㉢, ㉣ **08** 학생들, 비유, 애정, 따뜻한, 주제 **09** 서술자 **10** (1) × (2) ○ (3) ○ (4) × **11** (1) ㉠ (2) ㉢ (3) ㉣ (4) ㉡ **12** (1) × (2) ○ (3) × (4) ○ **13** ㉢ - ㉣ - ㉡ - ㉠ - ㉣ - ㉡ **14** (1) ㉢ (2) ㉠, ㉢ (3) ㉡, ㉣ **15** (1) ㉡, ㉢ (2) ㉠, ㉣ **16** 주인공, 의도, 상상, 해학성

대단원 종합 문제

p.51~55

- 01** ① **02** ③ **03** ③ **04** ③ **05** 자신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란 존재이므로 손님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06** ⑤ **07** ③ **08** ④ **09**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10** ② **11** ③ **12** ① **13**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14** ⑤ **15** ② **16** ④ **17** ③ **18** ② **19** ④ **20** ④ **21** ② **22** 증기 제분소

-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짐차에 실려 온 ‘딸기’로 ‘지 몸’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시 속에 등장하고 있다.
- 02** 이 시의 화자인 딸기는 손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와 손님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으로 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3** ‘지폐 한 장으루다 ~ 팔촌까지 두루 사 가는’은 딸기를 제값을 주고 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가족 단위로 손님이 찾아온 상황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04** <보기>의 시에서도 딸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 05**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손님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제값을 주고 사 가기를 바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서술함.	1점	총 3점
손님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램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6** 학생들의 모습을 ‘강아지, 꼬마들, 나비’에 빗대는 한편, 학생들이 가져온 글감을 ‘별꽃 한 점, 무지갯빛 구슬, 흥터’에 빗대고 있다.
- 07** 이 시의 화자는 학생들이 시를 쓰는 모습을 관찰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자신과 학생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08** ㉢은 학생들이 찾는 글감을 빗댄 표현이다.

- 09** 학생들이 시를 고쳐 쓰며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보며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10** 이 글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가), (나)는 오늘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 또 쪼인 상황으로, (바)에서 점순이가 또 씹을 붙여 놓은 상황과 연결된다.

- 11**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점순이와 붙어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 12**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내민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표현에 해당하며, 감자를 거절당한 이후 ‘나’의 집 수탉을 데려다 자기네 닭과 닭싸움을 시키는 것은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마음과 ‘나’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마음이 섞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레라 하면, 주변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에서 ‘나’가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에서 ‘나’의 속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씹.	1점	총 3점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임을 씹.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4** ㉢은 점순이가 목격하지 않은 ‘나’와 ‘나’의 닭의 상황이므로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었을 때 서술하기 어려울 것이다.

- 15** 이 글은 이야기 안에 위치하는 서술자 ‘나’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16** 결말 부분은 동백꽃 속으로 ‘나’와 점순이가 파묻히며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어수룩한 ‘나’가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눈치채

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모습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

- 17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꿰뚫어 보고 전달한다. 즉, '나'와 점순이의 심리를 모두 알고 전달할 수 있으므로 '나'보다 점순이의 속마음을 더 자세히 제시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8 ㉠에서 '누 집 닭인데?'는 마름인 점순네와 소작농인 '나'의 집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말로, '나'를 걱정하는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
- 19 이 글에서 주인공인 코르니유 영감님과 주변 인물 간의 대립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
- 20 코르니유 영감님이 제분소가 들어서자 이를 비난한 것이나 방앗간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꾸민 것은 풍차 방앗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영감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1 코르니유 영감님과 마을 사람들이 나눈 대화는 코르니유 영감님이 서술자일 때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22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풍차 방앗간을 이용했지만, 증기 제분소가 생긴 이후로 사람들이 밀을 제분소에 맡기면서 풍차 방앗간이 사라져 갔다.

02 설명과 이해

01 설명하는 글 읽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58

1 중간 2 ⑤ 3 ③ 4 ②

- 1 설명하는 글은 '처음-중간-끝'의 구성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 2 ⑤의 허구성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쓴 것을 의미하는 말로 소설의 특징이다.
- 3 <보기>와 같이 대상의 의미, 범위, 뜻을 밝혀 설명할 때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제시된 문장에서는 배가 부른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결과의 원인이나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밝혀 설명하는 것은 '인과'에 해당한다.

● 소단원 체크 p.59~61

1 ②, ③ 2 ⑤ 3 ④ 4 ① 5 ⑤ 6 ⑤ 7 초록색 8 ③ 9 ② 10 눈에 도달하는 빛이 줄어들어 선수들의 눈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1 ④

- 1 (가)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중간'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을 소개한다. (가)를 토대로 '중간' 부분에서 '눈부심이 생기는 까닭'과 '검정 테이프의 비밀'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설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에서는 대상의 개념과 의미를 밝혀 설명하는 '정의'를 사용하여 '빛의 반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3 빛의 반사는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어떻게 반사하느냐를 기준으로 난반사와 정반사로 나뉜다.
- 4 ㉠은 '인과'를 사용해 울퉁불퉁한 표면에 빛이 반사되면 눈이 부시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① 또한 '인과'를 사용해 벚꽃잎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② 분석, ③ 정의, ④ 예시, ⑤ 대조

- 5 야구 선수들이 얼굴에 땀이나 기름기가 솟아나면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져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 눈부심이 심해진다.

6 ㉠은 ‘분석’을 사용해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것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예시, ② 정의, ③ 분류, ④ 대조

7 물체의 색은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 인식 되는 것이다. (바)로 보아 초록색 나무는 초록색 빛만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의 빛은 흡수한다.

8 우리의 눈이 인지하는 색은 빛의 반사와 흡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의 예시를 들었다.

9 ㉡ 검은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색의 빛도 반사하지 않아 검은색으로 보인다. ㉢ 흰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해 모든 색의 빛이 합쳐지며 흰색으로 보인다.

10 검정 테이프의 검은색은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줄어들어 선수들의 눈부심이 줄어든다.

11 (자)는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으로 ‘중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한편, (자)와 같이 글쓴이의 제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는 ‘처음’, ③은 ‘중간’의 특징이며 ⑤는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다.

교과서 날개 문제

p.59~61

1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에 부딪혀서 나아가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현상 2 굴과 장미, 개나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3 검정 테이프는 야구 선수의 피부에서 반사된 빛을 모두 흡수하여 눈부심을 줄여준다.

핵심 포인트

p.59~61

핵심 포인트

- 01 예측, 검정 테이프
- 02 인과, 난반사, 눈부심
- 03 예시, 인과, 눈
- 04 흡수, 햇빛

소단원 핵심 정리

p.62

질문, 예시, 원인, 눈부심, 검정

학습 활동 엮보기

p.63~66

학습활동 이해 1 흡수 2 ㉠, ㉡, ㉢, ㉣, ㉤, 인과, 예, 차이점, 까닭, 대조

학습활동 적용 ㉡ (나) 서도, 동도, 대조 (다) 분석, 대조 (라) 구분, 예시 (마) 자원, 정의, 예시 ㉢ 차이점

학습활동 응용 문제

p.63~66

- 1 ㉢ 2 ㉤ 3 ㉣ 4 정의 5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 6 ㉢
- 7 ㉢ 8 물체의 색, 예 9 ㉤ 10 ㉤ 11 ㉢ 12 ㉣ 13 ㉣
- 14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자. 15 ㉢

- 1 글쓴이는 독자에게 야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며 설명 대상과 관련한 독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 2 야구 경기 중에 선수들의 얼굴에 땀과 기름기가 솟아나면 같은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난다. 이때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면 햇빛을 흡수하여 눈부심을 줄일 수 있다.
- 3 <보기>에서 영양소를 주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눈 것은 ‘구분’에 해당하며, 대상을 기준에 따라 주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묶은 것은 ‘분류’에 해당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정의, ② 예시, ③ 인과, ⑤ 비교와 대조

- 4 <보기>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5 (가)는 여러 가지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를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를 기준으로 난반사와 정반사로 나누고 있다.
- 6 (나)는 야구 선수가 눈부심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가 사용되었다. ③ 또한 감기에 걸린 원인을 ‘인과’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예시, ② 분석, ④ 정의, ⑤ 분류

7 물체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에는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분석, ② 대조, ④ 인과, ⑤ 예시

8 가시광선의 흡수와 반사가 우리가 보는 물체의 색을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9 (가)는 독도의 위치, 독도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며, (나)는 서도와 동도의 규모와 모양새의 차이를, (다)는 독도를 구성하는 암석을 설명하고 있다. ⑤는 (가)~(다)에 제시된 정보가 아니다.
- 10 (나)는 '대조'를 사용하여 서도와 동도를 중심으로 규모와 모양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 11 (다)에서는 '분석'을 사용하여 독도를 구성하는 암석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조'를 사용하여 섬 정상부를 구성하는 암석과 나머지를 구성하는 암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12 (라)는 '구분'을 사용하여 독도 생태계의 종류를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로 나누고, '예시'를 사용하여 독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13 독도의 생태계는 동·서도의 육상 생태계와 그 주변 바다의 해양 생태계로 나눌 수 있다.
- 14 (바)는 설명문의 '끝' 부분으로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제시되어 있다.
- 15 (마)에서는 독도의 대표적인 자원을 설명하기 위해 해양 심층수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예로 들어 설명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우리말 특독 p.67

1 맞추다, 맞히다 2 ㉠ 굴곡 ㉡ 도서 ㉢ 관람하다 ㉣ 매장 ㉤ 이모저모
확인문제

01 (1) ㉠ (2) ㉢ (3) ㉣ (4) ㉡ (5) ㉤ 02 ㉡

- 2 ②의 문장은 '똑바르게 하다',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맞히다'가 아닌 '맞추다'의 활용형이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종합 문제 p.68~69

01 ㉣ 02 ㉢ 03 ㉢ 04 얼굴에 땀이 나면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져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부심이 심해져 경기에 방해받는다. 05 ㉤ 06 ㉡ 07 ㉤ 08 검정 테이프는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눈부심이 줄어든다.

- 01 이 글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④는 수필의 특성이다.
- 02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보기>의 그림은 난반사와 정반사를 구분하여 빛이 반사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다)와 가장 관련이 깊다.

- 03 (다)는 '정의'를 사용해 '빛의 반사'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구분'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를 난반사와 정반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④ 땀이 나면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는 이유를 '인과'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04 야구 선수는 경기 중에 얼굴에 땀이나 기름기가 솟아나는데 그러면 피부에서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 눈부심이 생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선수의 땀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함.	1점	총 3점
<조건 1, 2>에 맞게 서술함.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물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 우리가 물체의 색을 인지한다. 따라서 주황색 공은 여러 색의 빛 중 주황색 빛만을 반사해 우리가 주황색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 06 <보기>는 빛의 반사와 흡수가 색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나)의 문단을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하다.
- 07 ㉠은 태양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설명한 것이므로 ⑤의 '분석'이 사용되었다. ① 예시, ② 구분, ③ 비교와 대조, ④ 인과
- 08 검은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면 햇빛을 흡수하여 선수들의 눈부심이 줄어들어 공을 더 잘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를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70~71

1 정의, 구분, 인과 2 '분석'을 사용하여 태양 빛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빨간색 빛과 노란색 빛만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의 빛은 흡수한다. 4 • 독도 주변 바다의 자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사용해 대표적인 자원의 예를 제시한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정의'를 사용해 해양 심층수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의미를 설명한 것은 독도의 대표적인 자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1 대상의 의미와 뜻을 설명할 때는 '정의'를,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할 때는 '구분'을, 대상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인과'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의, 구분, 인과를 각각 바르게 제시함.	각 1점	총 3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서술함.	2점	총 5점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음을 제시함.	2점	
<조건 2>에서 제시한 문장 형식으로 서술함.	1점	

- 3 가시광선의 반사와 흡수가 우리가 보는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데, 물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 우리가 물체의 색을 인지한다. (다)는 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빨간 장미와 노란 개나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빨간 장미, 노란 개나리와 관련하여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서술함.	4점	총 7점
빛의 반사 및 흡수와 관련하여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라)에는 독도 주변 바다의 자원에 대해 ‘예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고, 해양 심층수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의미를 ‘정의’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설명하려는 대상에 적절한 설명 방법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서술함.	2점	총 10점
(라)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을 제시함.	각 2점	
(라)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이 적절하지 바르게 평가하여 서술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글쓴이가 (라)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 찾기 ▶ (라)의 중심 내용 찾기
- 2 (라)에 사용된 설명 방법 두 가지 찾기 ▶ 독도의 자원의 사례와 해양 심층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뜻을 제시할 때 사용한 설명 방법 파악하기
- 3 설명 방법의 적절성 평가하기 ▶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평가하기

02 점검·조정하며 설명하는 글 쓰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 72

- 1 내용 조직하기 2 ④ 3 ⑤ 4 ①

- 1 내용을 조직할 때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2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설명 대상,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정해야 한다.

- 3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구성, 내용, 표현 등을 점검해야 한다.

- 4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을 쓸 때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②, ③, ④ 논설문을 쓸 때 유의할 점이다. ⑤ 적은 분량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 **소단원 체크**

p. 73~77

- 1 ④ 2 ② 3 ⑤ 4 ④ 5 ㉠-㉡-㉢-㉣ 6 ② 7 평소 눈물이 나는 상황들을 제시한다. 8 ② 9 ⑤ 10 그런데 이 눈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1 ③ 12 ③ 13 ③ 14 ② 15 수성층 16 ⑤ 17 ③ 18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9 ②

- 1 서아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주제, 목적, 매체, 예상 독자를 정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하였다. ④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하고 조정할 내용이다.
- 2 <보기>는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 3 서아는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눈물’에 관해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하였다.
- 4 <보기>는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 중에서 ‘중간’ 부분의 특징으로, 서아는 ‘중간’ 부분에서 ‘눈물의 뜻, 눈물의 역할, 눈물의 성분과 구조, 눈물의 종류’를 설명하기로 하였다. ④는 ‘끝’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 5 서아는 개요를 작성한 후에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눈물의 뜻’을 맨 처음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을 ㉡ 앞으로 이동해야 한다.
- 6 서아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을 일단 한번 쪽 써 보고 나중에 고쳐 쓰면서 보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7 서아는 글을 시작할 때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평소 눈물이 나는 상황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8 서아는 독자인 우리 반 친구들을 고려하여 글을 다시 한번 읽고 고쳐 쓰기로 하였다.
- 9 서아는 처음 쓴 글에서 ‘누낭’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쉬운 표현인 ‘눈물주머니’로 고쳐 썼다.

- 10 '처음' 부분에 서아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서아는 눈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임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눈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 11 서아가 추가한 그림 자료는 눈물을 배출하는 과정과 관련 있는 눈물 기관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으로, 독자가 눈물 기관과 눈물의 배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2 '중간 2'에 눈물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으며, ③은 눈물의 역할과 관련이 없다.
- 13 ㉠은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신체가 눈물을 만들어 내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예시, ② 정의, ④ 분류와 구분, ⑤ 분석

- 14 '중간 3'에서는 '분석'을 사용하여 눈물을 구성하는 성분을 설명하고, 눈물의 구조를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15 눈물을 이루는 3층 구조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수성층은 눈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각막과 결막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감염을 막는다.
- 16 서아는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과 같이 반사적 눈물을 흘리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 17 [A]에서는 '대조'를 사용하여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맛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18 이 글은 눈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인공 눈물의 종류'는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사용하지 않았다.
- 19 서아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를 제시한 것은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탐구

p.73~77

- 교과서92쪽 주제
- 교과서93쪽 자료
- 교과서94쪽 개요
- 교과서98쪽 독자

핵심 포인트

p.75~77

핵심 포인트

- 01 생성하기, 예상 독자, 조직
- 02 흥미, 그림 자료
- 03 예, 쓰기 윤리

소단원 핵심 정리

p.78

설명문, 성분, 주제, 개요, 쓰기 윤리, 뜻, 인과, 대조

학습 활동 엮보기

p.79~82

학습활동 이해 1 계획, 처음, 출처 2 분석, 예시, 대조 3 제목, 수준
 학습활동 적용 1 정보 전달, 관리, 인과

학습활동 응용 문제

p.79~82

1 ④ 2 ② 3 ⑤ 4 ② 5 구분 6 ③ 7 글의 흐름을 고려해 문단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8 ⑤ 9 ③ 10 ④ 11 ④ 12 ㉠ 정의, ㉡ 예시 13 ⑤ 14 ④

- 1 ㉠은 표현하기, ㉡은 고쳐쓰기, ㉢은 내용 조직하기, ㉣은 내용 생성하기, ㉤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이다. 이를 글쓰기 과정에 따라 배열하면 ㉤ - ㉢ - ㉣ - ㉠ - ㉡이다.
- 2 대상에 관해 떠오르는 것들을 쓰고 자료를 찾아 정리하며 쓸 내용을 마련하거나,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을 삭제하고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조정해야 할 내용이다.

- 3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계획하기, ② 표현하기, ③ 내용 조직하기, ④ 고쳐쓰기

- 4 <보기>는 '눈물'의 뜻과 '정서적 눈물'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5 제시된 문장은 '눈물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6 글을 고쳐 쓸 때는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③ 글쓴이가 아닌 독자의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
- 7 <보기>에서는 글의 흐름을 고려해 '눈물의 역할'을 설명한 문단을 '눈물의 성분과 구조'를 설명한 문단의 뒤로 위치를 조정하였다.
- 8 쓰려는 글은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여드름에 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소통 공간을 이용하여 글을 실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 9 개요에서는 ③의 '여드름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마련한 내용 중에서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것은 삭제해야 한다.

- 10 '여드름의 뜻'을 설명할 때는 대상의 의미를 밝혀 설명하는 '정의', '여드름이 생기는 까닭'은 설명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예시'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여드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층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제목 '여드름'을 '사춘기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여드름'으로 고쳐 쓴 것이다.
- 12 ㉠은 '정의'를 사용하여 '여드름의 뜻'을, ㉡은 '예시'를 사용하여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13 글쓴이는 독자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만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글을 어떻게 시작할지 점검한 내용이다.
- 14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여러 개의 주제가 존재하거나 다양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말 특독 p.83

① 수선하다 ② 치료하다 ③ 수정하다 ④ 개정하다

확인문제

01 (1) 수선하다 (2) 수정하다 (3) 치료하다 (4) 개정하다 02 (1) 수선하다 (2) 치료한다 (3) 개정할 (4) 수정하였다

소단원 종합 문제 p.84~85

01 ② 02 ③ 03 ④ 04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눈물의 뜻'을 중간 부분의 맨 처음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05 ② 06 ①, ④ 07 ⑤
 08 <보기>는 반사적 눈물의 예로 (라)의 반사적 눈물의 뜻을 설명한 다음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01 설명하는 글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쓴 글이므로, 지식과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②는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이다.
- 02 (가)는 설명 대상, 주제, 목적, 매체, 예상 독자를 정하는 '계획하기' 단계, (나)는 쓸 내용을 마련하고 정리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 (다)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 03 글쓴이는 (나)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눈물'과 관련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써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다)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지 함께 정리하고 있다.

- 04 글쓴이는 (다)에서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점검한 후,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눈물의 뜻'을 '중간' 부분의 맨 처음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가 문제를 조정할 방법을 서술함.	1점	총 3점
<조건 1, 2>에 맞게 서술함.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눈물은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머지 2%가 염류, 단백질, 효소 등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순수한 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 06 (가)는 눈물의 뜻, (나)는 눈물의 성분과 구조, (다)는 눈물의 역할, (라)는 눈물의 종류, (마)는 정서적 눈물의 맛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제시된 개요와 비교하면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개요에서 수정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 07 ㉠은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의 맛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맛의 공통점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밝히는 '비교'의 설명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 08 <보기>는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눈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반응하여 흘리는 반사적 눈물의 예이다. 따라서 반사적 눈물의 뜻을 설명한 후에 <보기>의 예를 제시하면 독자들이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의 예가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86~87

- 1 ㉠ 정보, ㉡ 매체, ㉢ 예상 독자 2 1. '누낭'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눈물주머니'로 바꾸어 썼다. 2. 독자들이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추가하였다. 3 분석, 눈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눈물의 3층 구조를 '분석'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4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얼굴 등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를 말한다. 여드름은 사춘기 청소년의 85%에서 관찰되는 매우 흔한 피부 질환이라고 한다. 여드름은 초기에는 좁쌀 여드름이라 불리는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시작한다. 좁쌀 여드름은 피부 주변에 좁쌀처럼 하얀 것이 오돌도톨하게 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초기에 생긴 여드름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피부 주변이 부어오르는 염증성 여드름, 여드름 속에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여드름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여드름의 발생과 악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 당도가 높은 초콜릿, 유제품 등의 음식은 피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얼굴을 자주 씻어 늘 깨끗하게 하고, 손으로 짜거나 긁지 않아야 한다.

- 1 글을 쓰기 전에는 글의 주제, 목적, 매체, 예상 독자를 정하고, 글쓰기 계획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바르게 제시함.	각 1점	총 3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 (가)에서 '누냥'은 한자어로 예상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 쉬운 표현인 '눈물주머니'로 고쳐 썼다. (라)에서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사적 눈물의 설명 뒤에 예를 추가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고쳐 쓴 까닭을 포함하여 고쳐 쓴 내용을 바르게 제시함.	각 2점	총 5점
<조건 2>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로 서술함.	1점	

- 3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나)에서는 '분석'을 사용하여 눈물을 구성하는 성분과 눈물이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분석'을 제시함.	3점	총 7점
'분석'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라)는 '구분'을 사용하여 눈물의 종류를 설명하고, '정의'를 사용하여 눈물과 반사적 눈물, 정서적 눈물의 개념을 밝혔다. 또한 반사적 눈물의 예를 들어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드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여드름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정의'의 방법, 여드름의 증상과 관리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 등을 사용하여 서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2개 이상 활용함.	각 2점	총 10점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서술함.	3점	
'여드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라)에 사용된 설명 방법 찾기 ▶ 구분, 정의, 예시
- ② (라)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여드름'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예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얼굴 등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를 말한다.(정의) / 여드름의 관리 방법(예시)
- ③ 글을 고쳐 쓰기 ▶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어색한 부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고쳐 쓰기

디지털 창의활동

p.88

확인문제 1 ㉠ 2 ㉢

- 1 책을 만들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책을 실을 매체를 정해야 하지만, 디지털 책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책이므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2 디지털 공간에 완성된 디지털 책을 게시하여 서로의 책을 읽어 보고 소감을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책을 동의 없이 고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걸음 더

p.90

확인문제 1 ㉠ 2 ㉤ 3 ㉣

- 1 <보기>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로 문장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다듬어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 (마)에 의하면 '퇴고(推敲)'는 글을 고쳐 쓰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고쳐쓰기'의 단계와 가장 관련이 깊다.
- 3 고쳐쓰기는 글을 쓸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는 것이므로, 빠르게 글을 써 내려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91~92

- 01 까닭 02 (1)㉠ (2)㉡ (3)㉢ (4)㉣ (5)㉤ (6)㉥ 03 질문 04 소개
 05 (1)○ (2)○ (3)× (4)× 06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어떻게 반사하느냐 07 (1)× (2)○ (3)× 08 흡수 09 (1)인과 (2)분석 (3)예시 (4)구분 10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함. 11 정보 12 (1)○ (2)× (3)○
 13 목적, 개요, 윤리, 내용 14 주제 15 (1)○ (2)× (3)○ 16 (1)정의 (2)예시 (3)분석 (4)대조 17 (1)㉠ (2)㉡ (3)㉢ 18 참고 자료/참고한 자료의 출처 19 (1)눈물주머니 (2)그림 자료 (3)역할 (4)예/사례

대단원 종합문제

p.93~95

- 01 ㉠ 02 ㉢ 03 대조를 사용해 검은색 물체와 흰색 물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인과를 사용해 물체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04 ㉤ 05 ㉤ 06 ㉢ 07 ㉣ 08 소중한 독도에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한다. 09 ㉤ 10 ㉣ 11 ㉡
- 01 검정 테이프를 붙이면 야구 선수의 피부에서 반사된 빛을 모두 흡수해 눈부심을 줄여 주지만, 흰색 테이프를 붙이면 피부

에서 반사되는 빛이 흡수되지 않고 모두 반사되어 눈이 부시게 된다.

- 02 (다)는 '예시'를 사용하여 색깔이 결정되는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③ 또한 '예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의 예를 들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인과, ② 정의, ④ 대조, ⑤ 분류

- 03 (라)는 대조와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 검은색 물체와 흰색 물체의 차이점과 왜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 04 이 글은 전체적으로 야구 선수가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설명한 글이므로 설명 방법 중에서 주로 '인과'를 사용하였다.
- 05 (가)에 의하면 독도는 하나의 작고 외로운 섬이 아니라, 해저 분지에 솟아 있는 거대한 산의 일부로 서도, 동도, 그리고 89개의 부속 도서를 일컫는다.

- 06 (다)는 분석을 사용하여 독도를 구성하는 암석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조를 사용하여 섬 정상부를 구성하는 암석과 나머지를 구성하는 암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07 <보기>는 독도에서 멸종된 '강치'에 대해 다룬 내용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정보는 ④가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라)에, ②는 (가)에 이미 제시된 정보이다.

- 08 글쓴이는 '중간' 부분에서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끝' 부분인 (바)에서 독도가 소중히 지켜 나가야 할 가치 있는 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독도에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쓰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9 설명하는 글은 대상, 사실,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는 글로, 글쓴이의 의견이 아닌 설명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10 (가)와 비교할 때 (나)에 '인공 눈물의 종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눈물의 역할'과 '눈물의 3층 구조'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인공 눈물의 종류'는 삭제했고, '눈물의 역할'과 '눈물의 각 층'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찾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반사적 눈물의 예'는 '고쳐쓰기'의 단계에서 추가한 내용이다.

- 11 <보기>는 '분석'의 방법으로 곤충의 몸을 이루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은 '분석'을 사용하여 눈물의 2%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은 '분석'을 사용하여 눈물의 3층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의, ㉣ 구분, ㉤ 대조

03 상황에 맞는 표현

0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98

1 피동 표현 2 ④ 3 ② 4 ④

- 1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능동 표현,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 한다.
- 2 '만들다'는 능동 표현이다. '의자가 (목수에 의해) 만들어지다.'에서 '만들어지다'가 피동 표현이다.
- 3 직접 인용을 할 때에는 큰따옴표와 조사 '(이)라고'를 써서 표현한다.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하는 것은 간접 인용에 해당한다.
- 4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옮길 때 말을 하는 상황에 따라 문장 속의 인칭 대명사나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등이 달라진다. 그러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고 해서 인용하는 말의 중심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체크 p.99~104

1 ④ 2 ② 3 ④ 4 성금이 (사람들에 의해) 모였다. 5 ⑤ 6 경미 7 ⑤ 8 통로가 민수에 의해 막혔다. 9 ④ 10 ② 11 ⑤ 12 집이 (그들에 의해) 지어졌다. 13 ③ 14 인용 15 ③ 16 라고 17 ② 18 ② 19 ④ 20 자기/자신 21 ① 22 ⑤ 23 ④ 24 이번 달

- 1 (가)는 주어인 '유미가'가 제힘으로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가)의 서술어 '잡다'에는 피동 접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2 ②는 '개가 인형을 물었다.'에 대응되는 피동 표현이다. 나머지는 모두 능동 표현이다.
- 3 (나)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다. ④는 능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 4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서술어 '모았다'를 '모였다'로 바꾸고 주어를 '사람들이'에서 '성금이'로 바꾸면 된다. 또한 주어였던 '사람들이'는 피동 표현에서 '사람들에 의해'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생략 가능하다.

- 5 (가)를 (나)로 바꾸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당함을 나타내게 된다. ⑤는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달라지는 점이다.
- 6 (가)에서는 유미가 강조되고, (나)에서는 경미가 강조된다.
- 7 ①~④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만드는 접사지만 ⑤는 사동 표현만 만드는 접사이다.
- 8 '민수가 통로를 막았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접사 '-히-'를 사용하여 '통로가 민수에 의해 막혔다.'와 같이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9 '새가 벌레를 먹다.'를 피동 표현으로 만들면 '벌레가 새에게 먹히다.'가 되는데, 이때 사용된 피동 접사는 '-히-'이다.
- 10 ②는 피동 접사 '-리-'를 사용하여 '남호가 모기에게 물리다.'와 같이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아지다' ③, ④ '-기-' ⑤ '-어지다'

- 11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붙은 동사인 경우에 피동 접사 '-되다'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⑤의 문장을 '가설이 증명되다.'와 같이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12 '-아/어지다'를 사용하여 '그들이 집을 지었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주어 '그들이'가 '그들에 의해'로 바뀌는데 '그들에 의해'는 생략 가능하다. 목적어 '집을'은 주어 '집이'로 바뀌고, 서술어 '지었다'는 '지어졌다'로 바뀐다.
- 13 ③에서 '끓겨지다(끓+기+어지다)'는 능동 표현인 '끓다'에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사용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끓기다' 또는 '끓어지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14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이다.
- 15 "유미야, 운동장에서 축구하자."라는 말은 남호가 유미에게 한 말이므로 제시된 문장은 남호의 말을 인용한 표현이다.
- 16 제시된 문장은 직접 인용 표현이므로 조사 '라고'를 써서 표현해야 한다.
- 17 간접 인용 표현을 만들 때에는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써서 ㉠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직접 인용 표현을 만들 때에는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써서 ㉡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18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한다.
- 19 ㉠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옮길 때에는 조사 '고'가 아니라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 20 직접 인용에서 '나'가 가리키는 인물은 경미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직접 인용의 '나'를 '자기/자신'으로 바꾸어야 한다.

- 21 제시된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너'라는 인칭 대명사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 인용의 '너'가 가리키는 인물은 '나'이므로 간접 인용에서 '나'로 바꾸어야 한다. 제시된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나 시간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22 제시된 문장에서 '거기'는 동생의 입장에서 가까운 곳을 가리키므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여기'로 바꾸어야 한다. '저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23 ㉢를 ㉣로 바꿀 때에는 듣는 사람인 어머니를 높임 필요가 없으므로 '저'를 '나'로, '-어요'를 '-다'로 바꾸고 조사 '고'를 붙여 '있다고'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4 지난달에 경호가 말한 '다음 달'은 '이번 달'에 해당하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다음 달'을 '이번 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탐구

p.99~104

- 교과서122쪽 유미가, 하다, 경미가, 당하다
- 교과서123쪽 당하는, 유미에게, 경미가, 잡히다
- 교과서124쪽 호랑이가 벌에 쏘이다. 새우가 고래에게 먹히다. 유미가 경미에게 밀리다. 아기가 아빠에게 안기다. 유물이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다.
- 교과서125쪽 달같이 (시우에 의해) 살아지다. 도자기가 (도예가에 의해) 빚어지다.
- 교과서126쪽 라고, 고, 그대로 옮긴, 바꾸어 옮긴
- 교과서127쪽 큰따옴표, (가)의 방식: "경미야,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라고, "다른 약속이 있어."라고, (나)의 방식: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 교과서128쪽 자기도/자신도 같이 농구하고 싶다고, 그 마을이 마음에 든다고
- 교과서129쪽 자기가/자신이 설거지를 했다고, 이번 주에 꼭 영화 보러 가자고

핵심 포인트

p.99~104

- 핵심 포인트
- 01 피동
- 02 주어
- 03 기, 업히다, 쏘다
- 04 직접, '고'
- 05 지시 표현

학습활동 이해 1 능동 표현, 피동 표현, 직접 인용, (이)라고, 간접 인용, 고
 2 주체, 피동,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피동 3 설득력, 직접 인용
학습활동 적용 1 쓰일 2 인용 표현, 피동 표현, 부정적, 주체, 객관적

● 학습활동 응용 문제

1 ④ 2 화분을 깬 주체 / 화분을 깬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 3 ⑤ 4
 ⑤ 5 ① 6 ⑤ 7 ⑤ 8 식탁을 닦아 달라는 뜻이다. 9 ④ 10
 ⑤ 11 ③ 12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해서 사용했다. / 과도
 한 피동 표현이다. 13 ② 14 ④ 15 ⑤

- 1 피동 표현은 주어에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① 직접 인용 ② 부정 표현 ③ 능동 표현 ⑤ 사동 표현
- 2 ㉠에서 아이는 “제가 화분을 깬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화분이 깨졌어요.”라고 말함으로써 화분을 깬 사람이 자신이라는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 3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에 맞출 수 있다.
- 4 ㉠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추정하다’에 피동 접사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5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사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건에 주목하게 하고 객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 기사 등에서 피동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 6 (가)에서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식탁에, (나)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종업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가)에서는 안 닦인 식탁이, (나)에서는 식탁을 안 닦은 종업원이 강조된다.
- 7 (가)는 식탁에 초점을 맞춘 피동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식탁을 닦아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8 (가)와 (나)에서 손님은 각각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종업원에게 식탁이 안 닦였으니 닦아 달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 9 3-(1)의 글에서는 많은 열량이 소모되고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면서도 장소나 비용의 제약이 덜한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와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 10 (가)와 (나)는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글로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가)에서는 직접 인용을 사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주고, (나)에서는 간접 인용을 사용하여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 11 ‘믿기지’는 피동 접사 ‘-기-’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피동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달렸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② ‘뒹이지’라고 표현해야 한다. ④ ‘쏟여’라고 표현해야 한다. ⑤ ‘들려’라고 표현해야 한다.

- 12 ‘쓰여질’은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사용한 과도한 피동 표현이다.
- 13 제시된 문장에는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의 방식과 조사 ‘라고’를 사용한 직접 인용의 방식이 섞여 있으므로 조사 ‘고’를 사용하여 ②와 같이 간접 인용문으로 고칠 수 있다. 직접 인용문으로는 ‘친구는 “내가 팝콘을 살게.”라고 말했다.’와 같이 고칠 수 있다.
- 14 ㉠에는 직접 인용, ㉡에는 간접 인용, ㉢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15 기사는 ㉠, ㉡과 같이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과 환경 단체의 의견을 인용하고, ㉢과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말

특독

1 피조물, 피동, 인술자, 인용 2 귀엽데, 귀엽대
확인문제
 01 (1) 피동 (2) 인용 (3) 인력 (4) 피해 02 ③

- 2 ③ 말하는 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친구가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상황이므로 ‘-테’가 아니라 ‘-대’를 사용하여 ‘재밋대’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종합 문제

01 ④ 02 ③ 03 ④ 04 (다)에서 기자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식량난의 원인을 추정하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05 택배 상자가 거실에 쌓여 있다. 06 ④ 07 “유미야, 운동장에서 축구하자.”라고 08 ② 09 ② 10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인용하여 신뢰감을 주고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01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피동 표현이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2 ㉞에서는 유미가 경미를 잡은 것에, ㉟에서는 경미가 유미에게 잡힌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㉞에서는 유미가, ㉟에서는 경미가 강조된다.

03 (나)에서 아이는 “제가 화분을 깬어요.”라는 능동 표현 대신 “화분이 깨졌어요.”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말함으로써 화분을 깬 주체가 자신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04 ㉠은 ‘-되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을 사용해 식량난의 원인을 추정하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많은 사람 또는 전문가가 그렇게 추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를 통해 시정자로 하여금 전달하는 사건에 주목하게 하고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기자가 사용한 표현의 효과를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보기>의 문장에서 ‘쌓여져’는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중복된 피동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씀.	2점	총 2점
잘못된 부분만 고쳐 씀.	-1점	

06 ① 간접 인용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간접 인용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7 (가)에서 남호가 한 말을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남호가 유미에게 “유미야, 운동장에서 축구하자.”라고 말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서술함.	2점	총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8 경미의 말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고’를 사용해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경미의 말을 간접 인용한 표현이다. ③ 경미의 말을 직접 인용한 표현이다.
- ④ 유미의 말을 간접 인용한 표현이다. ⑤ 유미의 말을 직접 인용한 표현이다.

09 (다)에서 남호가 한 말을 인용 표현으로 옮기면 직접 인용은 ‘남호가 아버지께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라고 말씀드렸다.’, 간접 인용은 ‘남호가 아버지께 자기가 설거지를 했다고 말씀드렸다.’와 같이 쓸 수 있다.

10 (라)의 ㉠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직접 인용한 표현으로, 독자에게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와 장점이라는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도움

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에서 ㉠의 표현 효과를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112~113

1 (1) 피동 표현, 능동 표현 (2) -이- 2 (가)는 안 닦인 식탁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종업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지만, (나)는 식탁을 안 닦은 종업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종업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생태 보존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에서는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시민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에서는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가 생태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환경 단체의 의견을 간접 인용하였다. ㉢에서는 탐방 예약제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 1 (가)의 ‘식탁이 안 닦였네요.’는 피동 접사 ‘-이-’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고, (나)에서 ‘식탁을 안 닦으셨어요.’는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 2 (가)와 (나)에서 손님들의 말은 식탁을 닦아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가)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식탁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고, (나)에서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종업원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는 말이므로 종업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지만, (나)의 표현은 종업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 종업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와 (나)에서 종업원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 서술함.	3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다)에서 기자는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과, 탐방 예약제가 ○○ 국립 공원의 생태를 보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3점	총 7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에는 직접 인용, ㉡에는 간접 인용, ㉢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기자는 인용 표현을 통해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피동 표현을 통해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표현 방식에 담긴 의도를 서술함.	각 3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에 사용된 표현 방법 알기: 직접 인용 ▶ ㉠의 표현에 담긴 의도 파악하기: 주제 뒷받침
- ② ㉡에 사용된 표현 방법 알기: 간접 인용 ▶ ㉡의 표현에 담긴 의도 파악하기: 주제 뒷받침
- ③ ㉢에 사용된 표현 방법 알기: 피동 표현 ▶ ㉢의 표현에 담긴 의도 파악하기: 객관적 인상 유도

02 마음을 나누는 대화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4

1 공감하며 대화하기 2 ③ 3 ④

- 1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뜻하는데, 공감하며 대화하기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 등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감하며 대화하려면 우선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시선을 상대에게 두고 상대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이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 3 ①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③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 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소단원 체크**

p.115~117

1 ③ 2 ② 3 ④ 4 ② 5 ⑤ 6 상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7 ④ 8 ④ 9 ④ 10 서로 처지와 생각이 달라서 11 ③

- 1 ㉠에 이어지는 하나의 말을 통해 해나가 발목을 빼어서 아픈 데 정우가 자신의 부주의함을 지적하는 말을 하자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 해나는 정우에게 발목을 빼어서 아프다고 말하며 정우가 공감해 주기를 바랐는데, 정우가 해나의 상황에 공감해 주지 않고 조심하라는 조언만 해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해나가 정우에게 듣기를 기대한 말은 ④와 같이 해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말이다.
- 4 정우는 해나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하고 난 뒤,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고민 상담방에 질문을 올렸다.
- 5 공감하며 대화하기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하며 대화하려면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공감하며 대화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처지를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상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7 정우는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빠는 정우의 그러한 행동이 용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8 정우와 아빠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일관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을 뿐,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9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생긴 일(사건)에 관해 상대방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 일의 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등 갈등 조정이 어려워진다.
- 10 온라인 고민 상담방에 올린 정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서로 처지와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1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면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가 바라는 바를 전달할 수 있어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심 포인트

01 공감, 격려

02 원인, 객관적, 갈등

소단원 핵심 정리

갈등, 질문, 공감, 아빠, 조언, 차이, 집중, 갈등, 객관적, 원만한

학습 활동 엮보기

학습활동 이해 1 공감, 조언, 표정, 요약, 의미, 갈등, 감정, 객관적, 구체적, 존중 2 걱정하는, 체험 학습, 이해해

학습활동 적용 식사 문화, 사회·문화적 배경, 존중

학습활동 응용 문제

1 ⑤ 2 ④ 3 ④ 4 ③ 5 ⑤ 6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기 7 ④ 8 ④ 9 ② 10 ⑤ 11 ⑤ 12 ④ 13 ⑤

- 1 정우는 해나에게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고민 상담방에 질문을 올린다.
- 2 공감하며 대화하길란 남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 등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지지와 격려, 응원을 보내고 싶을 때 이러한 대화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이인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필요하다.
- 3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을 이해하고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며 대화하는 것이지,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4 정우와 아빠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서로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 5 고민 상담방에서 정우는 아빠와의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갈등이 생긴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라는 조언을 얻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6 <보기>는 ㉠의 앞에서 “아까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빼었어. 그래서 아파.”라고 한 해나의 말을 요약해서 말한 것이다.
- 7 발목을 빼어서 아픈 친구의 처지에 공감하며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몸짓이나 표정은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주거나 걱정하는 몸짓 또는 표정이 적절하다.
- 8 “곧 체험 학습 가잖아. 그때까지 아프면 어떡하지?”라고 한 해나의 말에는 걱정과 염려의 감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에서는 ④와 같이 해나의 이러한 감정에 공감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9 ㉠은 아빠와의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 위해 정우가 지난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말이니 아빠를 비난하는 표현이 아니다.
- 10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려면 ⑤와 같이 상대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며 요청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을 담아 하는 말이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
- 11 정우는 음식을 모아 함께 먹는 것이 익숙하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유진이는 자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익숙한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한 식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겼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는 각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다.
- 12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자신의 처지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13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⑤는 유진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므로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

우리말 특특

눈을 맞추다: ㉠ / 귀를 열다: ㉡ / 귀를 기울이다: ㉢ / 가슴이 넓다: ㉣ / 무릎을 마주하다: ㉤

확인문제

01 ④ 02 (1) 눈에 익다 (2) 귀가 얇다 (3) 가슴에 새기다 (4) 머리를 식히다

- 1 '발이 넓다'는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④에는 이해심이 많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가슴이 넓다'라는 관용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 (1) '여러 번 보아서 익숙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는 '눈에 익다'로, '그 사람 눈에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2)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의 관용구는 '귀가 얇다'로 '그는 귀가 얇아서 입장을 계속 바꾼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3)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는 '가슴에 새기다'로, '영희는 엄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학교에 갔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4) '흥분되거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다.'라는 뜻의 관용구는 '머리를 식히다'로, '지원이가 머리를 식히려고 휴식을 취했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소단원 종합 문제

p. 124~125

- 01 ② 02 해나는 정우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 해나는 정우가 발목을 삐어 아픈 자신을 걱정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03 ④ 04 상대와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05 ⑤ 06 ⑤ 07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정우와 아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08 ③ 09 ⑤

01 정우는 발목을 삐어 아픈 해나가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조언한 것이므로, 해나가 자신의 조언에 대해 화를 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다.

02 (가)에서 해나는 정우에게 발목이 아프다고 말하며 정우가 자신을 걱정해 주고, 자신의 처지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정우에게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자 화를 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해나가 정우에게 기대한 반응을 서술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나)에서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정우의 말은 ④와 같이 해나의 아픔에 공감하는 내용이 적절하다.
- 04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 공감하며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상대와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있음을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5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 등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을 뜻하므로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⑤의 하울이다.

- 06 (가)에서 아빠는 정우의 방에 정우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정우가 이러한 물건을 사는 데에 용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적하였다.
- 07 정우는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빠는 정우의 그러한 행동이 용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두 사람이 갈등하는 원인을 서술함.	2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8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생긴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09 (나)를 참고할 때, 정우가 아빠와의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⑤와 같이 갈등이 생긴 일에 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Clinic 오답 강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①과 같이 대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②, ③, ④와 같은 방법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 126~127

1 의미, 비난, 갈등 2 정우와 아빠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했기 때문이다. 3 갈등을 키울 수 있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한다. 4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 사는 것을 아빠가 용돈 낭비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 1 정우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빠는 그런 정우의 행동이 용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우는 아빠와 이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비난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속상해하고 있다.

- 2 이 대화에서 정우와 아빠는 정우가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일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랐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상대에게 바라는 점 등을 차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우와 아빠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서술함.	3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3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할 때 비난이나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표현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함.	5점	총 7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정우와 아빠의 대화에서 정우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을 아빠가 용돈 낭비라고 말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정우는 아빠의 말이 비난으로 느껴져서 속상했고,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빠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조건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함.	7점	총 10점
<조건 2>에 맞게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사건에 관한 객관적 전달** ▶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 사는 것을 아빠가 용돈 낭비라고 말씀하셔서
- ②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감정** ▶ 정말 속상했어요.
- ③ **정우가 아빠에게 바라는 점** ▶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법 기초 다지기

p.128~129

- 1 능동, 피동 2 이, 되다, 어지다 3 (1) × (2) × (3) ○ 4 (1) 피 (2) 능 (3) 피 5 (1) 덮이다 (2) 업하다 (3) 물리다 (4) 쓰이다 (5) 먹히다 (6) 밀리다 (7) 안기다 (8) 담기다 6 (1) 증명되다 (2) 사용되다 (3) 결정되다 (4) 발견되다 7 (1) 쏟아지다 (2) 빗어지다 (3) 삼아지다 (4) 만들어지다 8 (1) × (2) ○ (3) × (4) × (5) ○ (6) × 9 (1) 동생이 형에게 업하다. (2) 모기가 남호를 물다. (3) 아기가 아빠에게 안기다. (4) 눈이 산을 덮다. 10 인용 11 (1) ㉠ (2) ㉡ (3) ㉢ (4) ㉣ 12 (1) ㉠ (2) ㉢ (3) ㉣ (4) ㉤ 13 (1) 고 (2) 고 (3) 라고 (4) 라고 14 설득력, 직접, 간접 15 지시, 시간 16 (1) 자기/자신 (2) 거기 (3) 나 (4) 이번

디지털 창의활동

p.130

확인문제 1 ④ 2 ⑤

- 1 (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나무가 가온이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가온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 2 인공 지능이 만든 대본의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공감적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공 지능이 만든 대본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한 걸음 더

p.133

확인문제 1 ② 2 ④ 3 ④ 4 ③ 5 ⑤ 6 관찰 7 ㉠ 8 ②

- 1 이 글에서는 비폭력 대화법의 개념과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비폭력 대화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2 (다)에서 글쓴이는 비폭력 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폭력 대화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④는 글쓴이의 생각과 다르다.
- 3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로 상대에게 내 뜻을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화자를 낮추는 말로 들리기보다 오히려 청자를 낮추는 말로 들리기 쉽다.
- 4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이다. ③에서 “걱정했어.”의 주어는 ‘나’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에 해당한다.
- 5 상대와 갈등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 나가려면 ‘나’를 주어로 하는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⑤는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에 가깝기 때문에 ⑤와 같이 대화를 하면 상대와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 6 비폭력 대화의 형식에는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제시된 설명은 이 가운데 ‘관찰’에 해당한다.
- 7 비폭력 대화에서 ‘부탁’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에게 요청하는 말하기로, ‘~해 줄래?’, ‘~해 주시겠어요?’ 등의 형식으로 말해야 한다. ㉠은 부탁이 아니라 상대에게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으므로 비폭력 대화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탁의 형식으로 말하려면 ‘문자에 답을 해 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8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한다고 상대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걸으므로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부탁하는 말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

01 제힘으로 02 피동 표현 03 유미가 시우에게 잡히다. 04 (1) ㉠ (2) ㉡ (3) ㉢ (4) ㉣ 05 (1) 쏘이다 (2) 먹히다 (3) 밀리다 (4) 안기다 (5) 증명되다 06 (1) ㉠ (2) × (3) ㉡ (4) ㉢ 07 직접 인용, 간접 인용 08 (이)라고, 따옴표, 고 09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10 (1) 점심 먹으러 가자고 (2) 내일 보자고 (3) 자기가 청소를 했다고 (4) 오늘 비가 올 것 같다고 11 (1) × (2) × (3) ㉠ 12 간접 인용 13 조언, 공감 14 공감 15 (1) 몸짓, 표정 (2) 격려 (3) 요약, 재구성 16 신뢰, 관계 17 (1) ㉠ (2) × 18 많이 아파? 괜찮아? / 저런, 보건실에 가는 거 도와줄까? 19 연예인, 비난 20 갈등 21 (1) 욕구, 차이 (2) 객관적, 진술 (3) 구체적 (4) 존중 22 상처, 원만한 23 의미 있다는 것

01 ㉢ 02 ㉤ 03 ㉤ 04 ㉡ 05 ㉢ 06 ㉠은 직접 인용을 사용하여 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은 간접 인용을 사용하여 대화를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07 ㉣ 08 ㉡ 09 ㉢ 10 ㉣ 11 ㉡ 12 ·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 상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상대와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의 효과: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전달할 수 있다. 13 ㉢ 14 ㉣ 15 ㉢ 16 ㉣

- 01 (가)의 서술어 ‘잡다’는 주어가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 02 (나)에서 아이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화분이 깨졌어요.”라고 말함으로써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화분을 깬 주체가 자신이라는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다)의 ㉠은 피동 표현, <보기>는 능동 표현이다. 추정의 주체가 기자임이 드러나는 <보기>와 달리, ㉠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주체를 숨기고 사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사건에 주목하게 하고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는 (다)의 ㉠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4 ‘업혀지다’는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되었다. ‘업다’는 피동 접사 ‘-히-’를 사용하여 ‘업히다’와 같이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05 ㉠은 (가)의 대화를 직접 인용 표현으로 옮긴 것이고, ㉡은 (가)의 대화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옮긴 것이다. ㉠과 같은 직접 인용 표현을 만들 때에는 큰따옴표(“ ”)와 조사 ‘라고’를 써서 표현한다.

- 06 ㉠은 (나)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것이고, ㉡은 (나)의 대화를 간접 인용한 것이다. 직접 인용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간접 인용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그 뜻을 살리면서 간결하고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으로 옮길 때의 효과를 각각 제시함.	각 2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7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칭 대명사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보기>의 직접 인용에서 ‘나’는 시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나’를 ‘자기/자신’으로 바꾸고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해야 한다.
- 08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지시 표현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유미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간접 인용으로 나타낼 때에는 ‘이’를 ‘그’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라)의 말을 직접 인용으로 나타내면 ‘시골에 간 유미는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라고 말했다.’로, 간접 인용으로 나타내면 ‘시골에 간 유미는 그 마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로 표현해야 한다.
- 09 (나)에서 아빠가 좋아하는 연예인 물건을 사는 것을 용돈 낭비라고 하자 마음이 상한 경우 역시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 해나가 기대한 반응은 공감이었으나 정우는 해나가 기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④ (가), (나) 모두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다. ⑤ (나)에서 정우와 아빠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었다.

- 10 공감하며 대화하려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도 상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대화해야 한다. ④의 경우,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 공감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 11 ②는 정우를 비난하고 정우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로 적절하지 않다.
- 12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신뢰감과 친밀감, 상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를 통해 생각과 처지가 다른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와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의 효과를 각각 제시함.	각 2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가)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면 약 120kcal의 열량이 소모되지만, 계단 오르기를 하면 그 두 배의 열량이 소모된다고 하였으므로 계단 오르는 빠르게 걷기보다 열량 소모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14** ㉔에서는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가 ○○ 국립 공원의 생태 보존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환경 단체의 주장을 간접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단체의 입장은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를 도입하지는 것이 아니라 ○○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 시행을 검토하지는 것에 가깝다.
- 15** 비폭력 대화법은 ‘나’를 주어로 하는 ‘나 전달법’으로, 내가 본 것과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말로 들려서 대화를 차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㉔은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폭력 대화법이 아니다.
- 16**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형식을 갖는데, 제시된 대화에서 ①은 관찰, ②는 느낌, ③은 필요, ⑤는 부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너 전달법’을 사용한 말이므로 비폭력 대화로 보기 어렵다.

04 개성적 발상과 표현

01 반어와 역설로 표현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2

1 ② 2 ③ 3 ③

- 1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속에 들어 있는 의미가 달라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는 없다.
- 2 ③은 겉보기에 모순되는 표현이 아니다. 나머지는 꾸며 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서로 모순된다.
- 3 역설적 표현은 모순되는 표현의 이면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의미는 간접적으로 전달되며, 독자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면 후일>

● 소단원 체크

p.143

1 ③ 2 ㉠ 반어, ㉡ 잊었노라 3 ④

- 1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과 이별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별의 원인은 나타나지 않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도 않다.
- 2 이 시의 화자는 ‘잊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3 ‘잊었노라’는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어를 써서 나타낸 표현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p.144

미래, 운율, 이별, 의미, 잊었노라, 반대, 여운

학습

활동 엮보기

p.145~146

학습활동 이해 2 반대, 여운

1 ① 2 ④ 3 ① 4 ④ 5 잊었노라 6 ② 7 ④ 8 ④

- 1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 2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에 매우 슬퍼하고 있으며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 3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을 사랑하고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의 화자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자 잊지 못하는 존재이다.
- 4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태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잊지 못해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을 나무라고 있지는 않다.
- 5 이 시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을 잊지 못하고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잊었노라'라며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6 '잊었노라'라는 시구 앞에 <보기>의 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당신'을 잊었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무척 그리워하고 '당신'과의 이별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을 잊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7 이 시에서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를 활용하여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8 이 시에 쓰인 주된 표현법은 '반어'이다. 반어를 통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독자는 화자의 속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여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화자의 속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낙타>

1 ③ 2 ① 3 1연, 4연

- 1 이 시에서는 역설의 표현 방법으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설의, ② 도치, ④ 반어, ⑤ 은유에 해당한다.
- 2 '혹'은 낙타가 힘든 사막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꿈' 역시 '나'가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 3 1연과 4연에서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에 걸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이 담겨 있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유사성, 낙타, 꿈, 어려움, 혼자, 꿈

학습활동 이해 1 혼자 2 어려운, 원동력 3 꿈
학습활동 적용 1 절약, 역설 2 참신

1 ④ 2 4연 3 ① 4 ④ 5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6 ④ 7 날씨 참 좋네요. 8 ② 9 날씨가 나쁘다. / 날씨가 좋지 않다.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① 15 ②

- 1 낙타는 혹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혹이 있어 힘든 사막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 2 이 시는 1~3연에서는 낙타에 관한 내용이, 4~6연에서는 '나'(화자)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 구조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 3 낙타의 혹에 저장된 것은 '수분'이 아니라 '지방'으로, 낙타는 이 지방을 연소시켜 체내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사막의 환경에서 물과 음식 없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 4 이 시에서 '꿈'은 '나'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화자는 꿈이 있기에 노력하며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5 이 시에서는 <보기>와 같은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낙타와 '나'가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 6 이 시에서는 역설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과 화자에게 꿈이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7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고 모처럼 나들이를 나와 만난 소나기가 반가울 리 없으므로, 날씨가 안 좋다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날씨 참 좋네요."가 반어가 쓰인 표현이다.
- 8 (나)는 공익 광고로, 반의 관계의 '뽑다'와 '심다'를 모순된 표현으로 연결하여 플러그를 뽑는 것이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9 (가)의 "날씨 참 좋네요."는 반어가 쓰인 표현으로 이 말에 담긴 속뜻은 '날씨가 나쁘다. 날씨가 좋지 않다.'이다.
- 10 (나)에서 '뽑는 것'은 쓰지 않는 플러그이고, '심는 것'은 나무

이다. 이 말에는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을 나무 심기와 관련지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 11 ①~④는 모두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인 역설이 사용된 표현이다. '화려한 휴가'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 제목으로 비극적인 일을 화려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반어가 쓰였다.
- 12 시에 사용할 표현 방법은 경험과 관련하여 떠올릴 내용은 아니다.
- 13 동생이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간 상황이므로 동생 때문에 화가 난 것이 화자의 속마음이다. 이를 반대로 표현한 것은 '예쁜 짓만 골라 하는 내 동생'이다.
- 14 참신하고 인상 깊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 쓰인 시구는 짝사랑을 '행복한 괴로움'으로 표현한 것이다.
- 15 반어나 역설을 써서 시를 쓰면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시로 나타낼 때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으로 쓸지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말 특독 p.153

1 잊어버린, 잃어버렸어 2 꿈자리, 돼지꿈
확인문제
 01 ④ 02 (1) 꿈자리 (2) 꿈길 (3) 돼지꿈 (4) 개꿈

- 1 ④에서 '잊어버리다'는 '기억하여 두어야 할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알맞게 쓰였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잃어버렸다', ② '잊어버리면', ③ '잊어버리고', ⑤ '잃어버려'로 써야 한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54~155

01 ② 02 ⑤ 03 잊었노라, 잊을 수 없다.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④ 09 ① 10 ⑤ 11 ③

- 01 화자는 길으로는 '당신'을 잊었다고 표현하지만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화자가 '당신'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현재에 이어 먼 훗날에도 '당신'을 잊을 수 없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4연에서 화자는 '오늘도 어제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라는 표현은 미래에 당신을 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후일까지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이 담긴 표현이다.

- 03 이 시에서 화자는 '잊었노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반어가 쓰인 것으로 그 안에 담긴 속마음은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구를 바르게 씀.	2점	총 4점
시구에 담긴 의미(속마음)를 바르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이 시에서는 같은 시어, 동일한 문장 구조, 3음보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과 끝부분이 동일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수미상관의 방식이나, 의성어, 의태어는 이 시에서 쓰이지 않았다.
- 05 이 시에서는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인 반어가 주로 쓰였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의미, ② 도치, ④ 풍자, ⑤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 06 ㉠에서 '당신'의 속마음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화자'의 속마음 이 반어를 활용하여 인상 깊게 드러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②, ④ 반어의 효과이다. ③ 반복의 효과이다.

- 07 이 시는 내용의 1~3연의 전반부와 4~6연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나 있다.
- 08 이 시에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 쓰였다. ④에는 모순된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09 이 시의 1~3연에서 낙타는 '혼자' 간다고 했으므로 낙타가 사람을 태운다거나 다른 낙타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막에 있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 10 낙타의 '혹'과 화자의 '꿈'은 모두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11 이 시의 1연과 4연은 역설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모순된 표현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깨달음을 준다는 것은 역설의 표현 효과로는 알맞지 않다.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156~157

1 반어, 모순, 역설 2 화자의 속마음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이다. 이 시에서는 반어를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

내고 있다. **3** 낙타는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나도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4** ㉠: (그릇을 깨뜨린 아들에게) 참 잘했다. → 그릇을 깨뜨린 아들을 질책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엄마에게 애교부리는 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미운 딸은 처음 보네. → 딸의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반대로 밉다고 표현한 것이다. ㉡: 삶은 곧 죽음이다. →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인생의 본질을 드러내는 의미이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가) 시에서는 반어를, (나) 시에서는 역설의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 (가)에서 화자는 '당신'을 잇을 수 없는 속마음을 '잇었노라'라며 반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인 반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또한 화자의 마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도록 하며, 화자의 속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구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을 적절하게 서술함.	1점	총 6점
이 시에 쓰인 표현 방법을 서술함.	2점	
이 시에 쓰인 표현 방법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함.	2점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형식으로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나)에서 '역설'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화자에게 꿈이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구 두 가지를 모두 찾아 씀.	4점	총 8점
이 시에 나타난 역설의 효과를 서술함.	4점	
시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쓰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은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한 반어가 쓰인 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태도를 통해 실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긴 역설이 쓰인 표현으로, 이면의 진실을 더욱 강조하여 나타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쓰인 표현법을 활용한 문장과 의미를 바르게 서술함.	5점	총 10점
㉡에 쓰인 표현법을 활용한 문장과 의미를 바르게 서술함.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반어와 역설 표현 알기** ▶ 반어와 역설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기
- 2 ㉠과 ㉡의 밑줄 친 부분의 발화 의도 이해하기** ▶ ㉠은 반어, ㉡는 역설을 사용한 의도와 의미 이해하기
- 3 ㉠과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예시 쓰기** ▶ 반어와 역설을 활용할 만한 상황과 표현 쓰기

02 이야기와 영상으로 풍자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 158

1 풍자 2 ㉠ 3 ㉡

- 1**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기, 비꼬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등의 방식으로 예뉘러 비판하는 표현 방법을 풍자라고 한다.
- 2** 풍자는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자막은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고, 대사, 효과음, 내레이션, 배경 음악은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 소단원 체크

p. 159~168

- 1 ㉠ 2**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이 느려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3 ㉢ 4** 지하가 무쇠로 막혀 있고 담벼락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연구소 밖으로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 ㉣ 6 ㉢ 7 ㉡ 8 ㉡ 9** 류이는, 들었다 **10 ㉣ 11 ㉣ 12 ㉣ 13 ㉤ 14 ㉢ 15** 달팽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16 ㉠ 17 ㉡ 18 ㉠ 19 ㉡ 20 ㉤ 21** 너무 놀라고 슬펐을 것이다. **22 ㉤ 23 ㉡ 24 ㉠ 25 ㉢ 26** (큰) 망치, (커다란) 도끼, (커다란) 압착기 **27 ㉢ 28 ㉣ 29 ㉣ 30 ㉤ 31 ㉤ 32 ㉡ 33**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 줌. 함께 가족사진을 찍음. **34 ㉡ 35 ㉢**

- 1** 연구소에 있는 동물의 특징을 통해 연구소에서 인간의 영생을 위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의 앞 문장에 동물들이 느리다는 특징이 서술되어 있고, ㉠ 뒤에 실험실 구석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멀리 도망가지 못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 3** 슈퍼 달팽이는 희귀 생명체라 나이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연구소의 동물 중 나이가 가장 많은지는 알 수 없다.
- 4** 연구소 사람들은 지하가 무쇠로 막혀 있고 담벼락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슈퍼 달팽이가 살아서 연구소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 5** 류이는 키우던 햄스터가 죽자 숲에 묻으면서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슈퍼 달팽이와 마주쳤다.
- 6** 슈퍼 달팽이를 걱정하는 류이의 모습으로 보아 류이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던 동물의 죽음에 상처를 받아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 7** 류이와 엄마가 외국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고 달팽이를 찾았지만 달팽이가 사라졌다.

- 8 류이가 엄마에게 달팽이를 잡아먹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달팽이를 아끼고 동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류이는 슈퍼 달팽이가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은 다행이지만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 10 류이네 집에서 사라진 달팽이가 장어 영감님 집에서 발견된 것은 맞지만 장어 영감이 류이네 집에서 달팽이를 데려간 것 인지는 알 수 없다.
- 11 ㉠은 슈퍼 달팽이가 장어 영감님 집에 있다는 말을 들은 류이가 달팽이가 걱정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본 것이다.
- 12 장어 영감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동물이 희생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먹으면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달팽이를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 삶아 먹으려 하고 있다. 가족, 친척과 함께 먹으려 하고 있으므로 가족도 모른 채하고 자신의 건강만 챙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 13 엄마는 장어 영감 집에서 달팽이가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 류이가 충격을 받아 힘들 것이라 예상해서 류이를 데려가지 않으려 한다.
- 14 류이는 슈퍼 달팽이가 장어 영감에게 잡혀 잡아 먹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아빠에게서 듣고 슈퍼 달팽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절망스러워하고 있다.
- 15 류이는 아빠에게 장어 영감에게 잡힌 달팽이 이야기를 듣고 달팽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고 싶다며 엄마, 아빠와 함께 장어 영감님 집으로 향한다.
- 16 장어 영감의 집 마당에 걸려 있는 커다란 가마솥의 용도는 슈퍼 달팽이를 삶는 등, 요리하기 위함이다.
- 17 류이가 슈퍼 달팽이를 처음 만났을 때 달팽이가 굴러서 집까지 따라왔던 일을 떠올린 것을 통해 슈퍼 달팽이가 굴러서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류이는 처음 달팽이를 만났을 때 굴러서 집까지 따라왔던 일을 떠올리고 달팽이를 탈출시키기 위해 달팽이가 든 상자를 넘어뜨렸다.
- 19 류이가 장어 영감에게 달팽이를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보아 달팽이를 탈출시키고자 한 일을 누워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 장어 영감이 류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슈퍼 달팽이를 삶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정머리 없는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21 류이는 자신이 어떻게든 탈출시키려 한 달팽이가 순식간에 가마솥에 빠뜨려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너무 놀라고 슬픈 마음에 털썩 주저앉았다.

- 22 류이가 달팽이가 숲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왔다며 달팽이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그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달팽이를 삶으라고 하는 장어 영감의 태도에서 욕심 많고 인정머리 없는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23 장어 영감은 요리사에게 달팽이가 익었을 테니 꺼내 보라며 달팽이를 빨리 먹고 싶어 하며 조급해하고 있다.
- 24 슈퍼 달팽이가 가마솥에서도 껍데기 속에서 나오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전혀 삶아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5 빨리 슈퍼 달팽이를 먹고 싶은 장어 영감의 바람과 달리 가마솥에 넣어 아무리 센 불에 삶아도 껍데기에서 나오지 않는 달팽이 때문에 장어 영감은 짜증이 난 상태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달팽이 껍데기를 부수려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26 장어 영감 가족은 슈퍼 달팽이의 껍데기를 깨기 위해 망치와 도끼, 압착기를 사용하여 껍데기를 부수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 27 장어 영감 가족은 슈퍼 달팽이의 껍데기를 깨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시도하지만 결국은 모두 실패한다. 이처럼 오래 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다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며 웃음을 자아낸다.
- 28 작가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림으로써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다른 동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 오래 살고자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29 장어 영감에 의해 아궁이에 던져진 슈퍼 달팽이는 껍데기가 새까맣졌지만 익지는 않았고, 뜨거워진 슈퍼 달팽이가 장어 영감의 얼굴에 들러붙어 장어 영감은 화상을 입게 된다.
- 30 장어 영감은 뜨거워진 슈퍼 달팽이가 얼굴에 들러붙어 화상을 입는다. 이처럼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다치는 장어 영감의 모습에서 풍자가 나타나고 있다.
- 31 슈퍼 달팽이가 장어 영감에게 복수를 했기보다 장어 영감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입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을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2 류이는 슈퍼 달팽이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달팽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으므로 달팽이가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기뻐했을 것이다.
- 33 류이는 집으로 돌아온 뒤 슈퍼 달팽이에게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달팽이를 다른 사람들이 흠쳐 가지 않도록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다.
- 34 슈퍼 달팽이는 아주 오랫동안 류이네 집에서 살았는데 가끔 집을 나가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 했으므로 슈퍼 달팽이가 자신의 자유와 의지에 따라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35 류이는 슈퍼 달팽이가 떠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살아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류이가 슈퍼 달팽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달팽이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날개 문제

p.159~168

1 • 영생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것 같다. • 오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동물들로 실험하는 것 같다. **2** •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큰 사람 • 자신의 욕망을 위해 동물이 희생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3** • 슈퍼 달팽이를 요리하기 위한 것이다. • 슈퍼 달팽이를 살아 먹으려고 걸어 놓은 것이다. **4** • 슈퍼 달팽이를 상자에서 탈출시키려고 • 슈퍼 달팽이를 굴려서 내보내려고 **5** •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 같다. • 가마솥에 들어갔으니 살아졌을 것 같다. **6** • 달팽이가 살아서 기뻐할 것이다. • 달팽이가 무사해서 안도했을 것이다.

핵심 포인트

p.160~168

핵심 포인트
01 영생, 슈퍼 달팽이, 영생 **02** 장수, 슈퍼 달팽이
03 장어 영감, 달팽이 **04** 상자, 탈출
05 욕심, 배려 **06** 실패, 동물
07 달이, 가족사진, 자유

소단원 핵심 정리

p.169

영생, 풍자, 슈퍼 달팽이, 이름, 축구공, 생명, 비판

학습 활동 엮보기

p.170~178

학습활동 이해 **1** 장어 영감, 류이 **2** 자유, 생명 **3** 슈퍼 달팽이, 욕망, 비판

학습활동 적용 **1** 예절, 자막, 대사, 배경 음악, 시각 이미지, 배경 음악, 알고 보니 독점 중, 대비, 강조 **2** 악기, 대비, 층간 소음 **3** 풍자, 웃음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70~178

1 ㉠-㉡-㉢-㉣-㉤ **2** ㉠ **3** ㉡ **4** 동물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알고 보니 독점 중'이라는 내레이션, 우스꽝스러운 느낌의 효과음 **16**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 **17** ㉡ **18** ㉤ **19** ㉢ **20** 풍자, 예절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초상권 ㉡ 저작권 **29** ㉤ **30** ㉢

1 연구소에서 탈출한 슈퍼 달팽이가 숲에서 류이를 만나 집으로 따라왔다가 장어 영감에게 잡힌다.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들이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이후 달팽이는 류이네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산다.

2 류이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 연구소 사람들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들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며 인간의 욕망 때문에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3 류이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동물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한다. 반면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은 오래 살고 싶어 하며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4 이 소설에서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동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오래 살려고 애쓰는 태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5 이 글에서 작가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장어 영감과 그 가족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6 ㉡는 류이가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슈퍼 달팽이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므로 풍자가 드러난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7 풍자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비판하고 조롱함으로써 깎아내리는 방법이다. ㉤는 해학의 표현 방법이 지닌 효과에 해당한다.

8 풍자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야 한다.

9 이 영상 매체 자료에서는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0 시각적 요소에는 자막, 시각 이미지 등이 있고, 청각적 요소에는 대사, 효과음, 내레이션, 배경 음악 등이 있다.

11 도서관에서 떠드는 학생들을 풍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숙해야 할 도서관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야 하므로 경쾌한 느낌의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

12 두 장면을 서로 대비하여 도서관에서 자리를 독점하는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13 두 장면에서 카메라와 대상과의 거리, 자막과 내레이션의 내용, 효과음 등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처럼 장면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강

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 14 이 영상 매체는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 자막, 시각 이미지 등의 시각적 요소, 내레이션 등의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 15 청각적 요소에는 효과음, 대사, 배경 음악 등이 있다.
- 16 <보기>는 모두 중간 소음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중간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17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거나 비꼬아서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②는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담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풍자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8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자는 주제의 영상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은 도서관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함으로써 올바른 도서관 이용 예절을 알리기 위한 것이 적절하다.
- 19 촬영 소감은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20 기획안의 기획 의도는 영상 매체 자료에서 비판할 대상과 제작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 21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므로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자는 내용의 영상 매체 자료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22 중간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영상 매체 자료는 비판 대상을 풍자하기에 알맞은 주제이므로 일반 영상 매체 자료보다는 풍자를 담아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 23 줄거리판에는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물의 대사, 배경이나 효과음 등의 청각적 요소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24 줄거리판에서 '시각 이미지'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를 고려하여 그림을 그리고 이를 메모해 두면 촬영할 때 도움이 된다.
- 25 카메라의 각도는 장면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 26 효과음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분위기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 27 영상에는 전달하려는 내용에 맞게 세로나 가로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28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9 사진 등을 활용할 때에는 저작권을 지켜야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0 줄거리판은 촬영하면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한 줄거리판 그대로 촬영과 편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 특특 p.179

넉쿨, 체할, 웬만한

확인문제

01 (1) 껍질 (2) 껍질 (3) 껍데기 (4) 껍데기 02 ③

2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는 '넉쿨'이나 '덩굴'로 써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체했다'로, ②는 '웬만한'으로, ④는 '넉쿨'이나 '덩굴'로, ⑤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체'로 바뀌어야 한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80~181

01 ④ 02 ② 03 류이가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된다며 소리치는 것으로 보아 놀라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04 혼자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05 ① 06 ④ 07 ② 08 장어 영감처럼 슈퍼 달팽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 슈퍼 달팽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

01 외국 할머니는 달팽이의 신통력을 알았으면 가족들과 나눠 먹었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류이가 슈퍼 달팽이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외국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③ 장어 영감은 슈퍼 달팽이를 같이 먹자고 류이네 가족을 초대하였다. ⑤ 류이의 부모님이 슈퍼 달팽이를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02 이 글에서 슈퍼 달팽이가 어떻게 장어 영감에게 붙잡혔는지는 알 수 없다.

03 류이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깊은 성격으로 장어 영감에게 잡힌 슈퍼 달팽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소리치고, 달팽이가 곤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스러워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슈퍼 달팽이에 대한 마음이 나타난 류이의 행동을 언급함.	2점	총 4점
류이의 심정을 적절하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류이가 엄마에게 외국 할머니를 언급하며 반문하는 부분에서 혼자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류이가 달팽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달팽이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슈퍼 달팽이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에서 장어 영감은 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슈퍼 달팽이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달팽이를 잡아 먹으려 하고 있다.

07 장어 영감이 달팽이를 아궁이에 던져 넣는 장면은 장어 영감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대상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비꼬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와는 거리가 있다.

08 류이는 집으로 돌아와 달팽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달팽이를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가지 않도록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슈퍼 달팽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함.	2점	총 4점
슈퍼 달팽이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 182~183

1 부정적인, 웃음 2 이 글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은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이다. 이들은 슈퍼 달팽이의 껍데기를 깨서 잡아먹으려 한다. 3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4 비판 대상: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함부로 파괴하는 사람들 / 상황 1: 잔디가 자라고 있다는 표지판이 있는 잔디밭에 들어가 '자연은 우리 것'이라고 말하며 잔디를 마구 짓밟다가 흙탕물에 옷이 엉망이 되는 상황 / 상황 2: '자연은 우리 것'이라고 말하며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 아파하는 상황 / 개선된 상황: '자연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우리 것'이라는 자막과 함께 잔디를 보호하고, 나뭇가지를 꺾지 않고 사진만 찍는 상황

1 풍자란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기, 비꼬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등의 방식으로 에둘러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2 이 글에서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들이 슈퍼 달팽이의 껍데기를 깨서 잡아먹으려 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냄으로써 풍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을 서술함.	2점	총 5점
이 글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이 글에서 작가는 풍자를 통해 영생에 대한 욕망,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풍자를 사용한 작가의 의도를 적절히 서술함.	4점	총 7점
작가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적절히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풍자가 담긴 영상 매체 자료에서 비판하기에 적절한 대상을 정하고, 이를 풍자의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풍자를 활용하여 비판하기에 적절한 대상을 서술함.	4점	총 10점
기획안에 제시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빈칸에 서술함.	6점	
풍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풍자 표현 이해하기 ▶ 풍자의 개념과 표현 효과 이해하기
- ② 풍자를 활용하여 비판할 만한 대상을 떠올려 보기 ▶ 우리 주변에서 비판할 대상을 정해보기
- ③ 풍자가 담긴 영상 매체 자료의 내용 쓰기 ▶ ②에서 비판할 대상을 풍자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담아 기획안에 제시된 내용 쓰기

디지털 창의 활동

p. 184

확인문제 1 ⑤ 2 ②

- 1 마중그림이 영상에 관한 흥미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영상의 내용과 관련 없는 그림이나 사진, 문구 등은 지양해야 한다.
- 2 마중그림은 영상의 한 장면을 골라서 꾸밀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마중그림을 만들 때에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써서 사진, 자막, 편집 효과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꾸밀 수 있다.

한 걸음 더

p. 186

확인문제 1 ③ 2 ⑤ 3 ④

- 1 글쓴이의 흥터는 어려웠던 유년 시절 생긴 것이다. 글쓴이는 어렸을 때에는 이 흥터를 부끄럽게 여겼으나 직장 선배의 말을 듣고 흥터가 어려움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2 이 글은 글쓴이의 손에 있는 흥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3 이 글에서 '아름다운 흥터'는 역설이 쓰인 표현으로 고난을 성실히 극복한 흔적, 정신적 성장을 보여 주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처 등이 해당하는데 친구들과 뛰놀다가 넘어져 생긴 상처는 이러한 예로 보기 어렵다.

- 01 반어 02 반대 03 떠난 임 04 그리움, 애뜻함 05 임과 이별 한 상황 06 이별, 그리워하고 07 (1)○(2)×(3)○(4)× 08 (1)○(2)○(3)×(4)○ 09 흑, 흑, 꿈 10 (1)㉠(2)㉡(3)㉢ 11 · 낙타는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 나도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12 (1)○(2)×(3)○(4)× 13 모순, 진실 (1) 의미 (2) 참신 (3) 진실 14 풍자 15 비판 16 슈퍼 달팽이 17 영생, 숲, 위기, 탈출, 시도, 이름 18 (1)×(2)×(3)○ 19 (1)○(2)×(3)○(4)×(5)×(6)× 20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 21 동물, 생명, 자유, 경시, 욕망 22 시각적, 청각적 23 (1)○(2)×(3)○

-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② 11 ③ 12 류이는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장어 영감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한다. 13 ④ 14 ④ 15 ② 16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알고 보니 독점 중'이라는 자막, '알고 보니 독점 중'이라는 내레이션

- 01 이 시에서는 반어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을 잊을 수 없는 화자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잊었노라'에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화자가 '당신'을 깨끗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 02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헤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과 만날 먼 훗날의 일을 가정하고 있다.
- 03 이 시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과는 반대로 '잊었노라'라고 표현한 반어가 쓰였다. ⑤에서 화자가 표면적으로는 '편히 지냈다'고 말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괴로운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가 쓰였다.
- 04 4연에서 화자는 '오늘도 어제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라는 표현은 미래에 당신을 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먼 후일까지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 05 <보기>는 ㉠에 담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과 같이 반어를 사용하면 표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비교적 쉽지만 화자의 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고, 표현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독자에게 여운을 줄 수 있다.
- 06 (가)에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표현 방법은 '풍자'이다.

07 (가)에서 낙타의 '흑'은 '꿈'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을 말한다. (가)는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극복해야 할 고난이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글쓴이에게 손의 흉터는 유년 시절의 부끄러운 흔적이었지만 직장에 들어가 나이 든 선배님의 말을 듣고 어려움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흔적으로 흉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즉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지, 흉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직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흉터를 자랑거리로 여기게 된 것도 아니다.

09 류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장어 영감네 집에 가서 슈퍼 달팽이의 탈출을 돕고 있는데 이는 슈퍼 달팽이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10 류이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물로 풍자의 대상인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들과 대비를 이룬다. 류이가 달팽이를 굴린 것은 달팽이를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풍자와는 관련이 없다.

11 류이는 슈퍼 달팽이를 탈출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달팽이가 굴러서 따라왔던 것을 떠올리고 달팽이가 굴러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12 류이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슈퍼 달팽이를 탈출시키려 애쓰고 있는 반면, 장어 영감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류이가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내용을 서술함.	2점	총 4점
장어 영감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내용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3 (가)는 즐거리관으로, 영상을 촬영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즐거리관을 수정하거나 즉석에서 새로운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중간에 수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나)의 두 장면은 카메라의 거리를 달리하여 대상의 문제를 강조하여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상의 움직임을 잘 보여 주기 위해 카메라의 각도를 다르게 하지는 않았다.

15 (나)에서는 장면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비판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16 이 영상 매체 자료에서는 가까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를 멀게 하여 촬영했을 때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장면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에는 시각적 요소인 자막과 청각적 요소인 내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알맞게 서술함.	각 2점	총 6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 보는 이와 말하는 이

01 시의 화자

p.04

예시 답안 01 오십 리 길 짐차에 실려 왔어요, 낯선 거리 씩땀기면서 /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유 02 (가)의 화자는 딸기이고, (나)의 화자는 딸기를 파는 상인이다. 03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움으로 자란 농작물의 가치 04 의인화한 딸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시를 읽는 재미와 신선한 느낌을 준다. (화자가 사용하는 사투리가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농작물인 딸기가 직접 자신의 처지와 바라는 바를 말하고 있어 작품의 주제 의식이 강조된다. 등)

01 (가)의 1행과 3~4행에는 이 시의 화자가 먼 거리를 짐차에 싣려 와 거리에서 손님을 찾고 있는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1행, 3~4행을 제시함.	3점	총 3점
표현을 한 개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한다. (가)에서는 딸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딸기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를 전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딸기를 파는 상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농작물의 가치와 손님에게 바라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와 (나)의 화자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가)의 11행에서는 딸기가 잘 자라려면 햇빛, 비, 흙, 공기 등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정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농작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움으로 자란 농작물의 가치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주제를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 1에 맞게 제시함.	1점	
<조건> 2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가)의 화자는 딸기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어 독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시를 읽는 재미를 유발한다. 또한 화자가 사용하는 충청도 사투리는 향토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농작물인 딸기가 자신의 가치를 직접 손님에게 말하고 있어 농작물의 가치라는 작품의 주제가 더욱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의 특성과 화자의 특성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7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주어진 글자 수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소설의 시점과 서술자 ①

p.05

예시 답안 01 순박하고 어리숙하다. / 눈치가 없고 둔하다. 02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자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03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분풀이이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04 점순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으로 점순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01 이 글에서 '나'는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 드러난 '나'의 성격을 설명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가)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나'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처음으로 표현하지만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자를 거절하자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서 '감자'의 역할을 설명함.	4점	총 4점
한 가지 측면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감자 사건이 있는 다음 날부터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을 깨거나 수탉을 잡아다가 싸움을 붙이는데, 이는 그 전날에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일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점순이가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는 이유를 제시함.	6점	총 6점
이유를 한 가지 측면만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다)에서 '나'는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깨는 것을 목격하지만 점순이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점순네 울타리만 후려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순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므로 항상 점순네의 눈치를 봐야 처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서 '나'가 점순이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제시함.	10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하지 않음.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소설의 시점과 서술자②

p.06

예시 답안 01 '나'는 점순이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지만, 이 일을 점순이의 부모님이 알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한다. **02** "그럼 너 이제 내 마음을 잘 알아줄 테냐?" / "앞으로는 나에게 잘 대해줄 거지?" **03** 점순이와 '나'의 화해와 사랑을 나타내고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04**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서술자인 '나'만 모르는 상황이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독자로서 하여금 작품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순박하고 어수룩한 서술자로 인해 작품의 해학성이 강조된다.

01 '나'가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인 까닭은 '나'의 집 수탉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닭싸움을 시켜 놓고 태연하게 호드기를 붙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에 분노했기 때문이고, '나'가 울음을 터트린 까닭은 '나'의 집과 점순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나'가 점순네 수탉을 죽인 사실을 점순네가 알면 '나'의 집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 드러난 '나'의 심리 변화를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점순이에게 잘 대해주는 것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점순이의 속마음을 반영하여 ㉠을 바꾸어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다)에서는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두 사람이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자 소설의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소재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서 '동백꽃'의 역할을 제시함.	4점	총 7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점순이와 갈등을 빚는데, 독자는 이러한 서술자로 인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순박하고 어수룩한 서술자의 특성으로 인해 소설 전체가 해학적인 분위기를 띠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서술자의 특성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 코르니유 영감님의 비밀

p.07

예시 답안 01 증기 제분소에 일거리를 다 빼앗겼으면서도 여전히 밀을 뺏고 있는 척하며 풍차 방앗간을 돌린 것을 의미한다. **02** 풍차 방앗간을 지키려는 코르니유 영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코르니유 영감님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3** 전통을 지키려는 코르니유 영감님의 집념 **04**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은 서술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풍차 방앗간에 대한 코르니유 영감님의 애정과 장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01 마을에 증기 제분소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밀을 뺏는 풍차 방앗간을 찾는 사람이 없어졌지만 코르니유 영감님은 풍차 방앗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 몰래 밀을 뺏는 척하며 풍차 방앗간을 돌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코르니유 영감님의 비밀'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새로운 문명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풍차 방앗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코르니유 영감님의 마음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코르니유 영감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 밀을 싣고 코르니유 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으로 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마을 사람들이 코르니유 영감님에게 일감을 준 이유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이 글은 전통 방식으로 밀을 뺏던 풍차 방앗간이 새로 생겨난 증기 제분소에 의해 사라지던 시기를 배경으로, 전통을 지키려는 코르니유 영감님의 집념과 그를 도우려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린 작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의 주제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이 글은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인 코르니유 영감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고 코르니유 영감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나'의 시선으로 코르니유 영감님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풍차 방앗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전통을 지키려는 장인 정신을 지닌 코르니유 영감님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서술자의 특성과 그 특성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2 설명과 이해

01 설명하는 글 읽기 ①

p.08

예시 답안 01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 **02**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03** '빛의 반사는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 크게 난반사와 정반사로 나뉩니다.' 빛의 반사를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04** ㉠은 야구 선수가 상대 선수와도 싸워야 하지만, 햇빛이 강한 날에는 땀과 기름기로 인해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눈부심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01 (가)는 이 글의 처음 부분으로 글에서 설명하려는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의 마지막 문장인 '지금부터 ~ 살펴보겠습니다.'를 통해 이 글에서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설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설명하려는 대상을 (가)에서 찾아 제시함.	2점	총 3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에서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히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제시함.	3점	총 5점
<조건> 1에 맞게 제시함.	1점	
<조건> 2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구분'이라고 한다. (나)의 '빛의 반사는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 크게 난반사와 정반사로 나뉩니다.'에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를 기준으로 빛의 반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문장을 제시함.	3점	총 7점
해당 문장에서 '구분'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제시함.	3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은 야구 선수가 상대 선수와도 싸워야 하지만 햇빛이 강한 날에는 눈부심과도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눈부심이 생겨나는 이유를 어떤 결과의 원인이나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 1에 맞게 제시함.	2점	
<조건> 2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설명하는 글 읽기 ②

p.09

예시 답안 01 태양 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나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나무가 초록색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03** 예시, 물체의 색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04** 검은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도달하는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야구 선수들은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인다.

01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설명 방법을 '분석'이라고 하는데 (나)의 '태양 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에서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태양 빛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문장을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다)에 따르면 우리가 물체의 색을 인지하는 것은 물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색을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나무가 여러 색의 빛 가운데 초록색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를 바탕으로 나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함.	3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다)에서는 빛의 반사와 흡수가 물체의 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굴과 장미, 개나리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제시함.	3점	총 7점
그러한 설명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제시함.	3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검은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줄어들게 된다. 햇빛이 강한 날,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야구 선수들은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를 제시함.	7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점검·조정하며 설명하는 글 쓰기 ①

p. 10

예시 답안 01 글의 주제와 목적, 글을 실을 매체와 예상 독자를 정하고 예상 독자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02 '인공 눈물의 종류'를 삭제해야 한다.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이다. 03 눈물에 관해 설명하는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눈물의 뜻'을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내용 조직하기, 이 단계에서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01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하기 단계에서 (가)의 글쓴이는 글의 주제와 글을 쓰려는 목적, 글을 실을 매체와 예상 독자를 정하고 예상 독자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글쓰기 단계에서 한 일을 모두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마련하고 정리하는데, (다)에서 생성한 내용 가운데 '인공 눈물의 종류'는 '눈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라는 글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서 삭제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함.	2점	총 5점
(가)를 참고하여 그 이유를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다)는 눈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간' 부분에서 '눈물의 역할'보다 '눈물의 뜻'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자연스럽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서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함.	3점	총 7점
순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다)는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인 '처음-중간-끝' 부분으로 나누어 개요를 작성하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설명할 것인지를 함께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 중 (다)에 해당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제시함.	3점	총 10점
(다)의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을 <조건>에 맞게 제시함.	7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점검·조정하며 설명하는 글 쓰기 ②

p. 11

예시 답안 01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02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 '누낭'을 '눈물주머니'로 고쳤고, 독자들이 눈물 기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를 추가하였다. 03 독자들이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하였다. 04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의 맛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01 (가)에서는 글의 제목을 '눈물'에서 '눈물, 너의 정체는 뭐니?'라고 고쳤는데, 고쳐 쓴 제목이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같이 글의 제목을 고쳐 쓸 때의 효과를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가)에서 글쓴이는 독자들이 '누낭'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누낭'을 '눈물주머니'로 고쳤다. 또 눈물이 '눈물샘'에서 '눈물점', '눈물소관', '눈물주머니', '코눈물관'으로 흐르는 구조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 자료를 추가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을 고쳐 쓰고 ㉢을 추가한 이유를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나)에서 글쓴이는 반사적 눈물의 뜻을 설명하고 나서,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반사적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예시라고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가 ㉣을 추가한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6점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제시함.	2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눈물 맛이 다르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제시함.	4점	총 10점
<조건> 1에 맞게 제시함.	4점	
<조건> 2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 제 글은 완벽해서 고쳐 쓸 게 없어요

p.12

예시 답안 01 퇴고란 글을 쓸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는 것을 뜻한다. 02 좋은 글을 쓰려면 고쳐쓰기를 해야 한다. 03 자신이 쓴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며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쳐 쓴다. 다른 사람과 글을 바꾸어 읽고 상대의 조언을 바탕으로 글을 고쳐 쓴다. 자신이 쓴 글을 시간이 지난 뒤에 읽고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 쓴다. 04 중국 당나라의 시인 가도가 시를 지을 때 마지막 부분을 '밀 퇴(推)로 할지, '두드릴 고(敲)로 할지 궁리하다가 한유의 조언을 받아들여 시를 완성하였다는 이야기에서 '퇴고'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 01 (다)의 첫 문장인 '글을 쓸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는 것을 뜻하는 '퇴고'라는 말'에서 퇴고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퇴고의 뜻을 찾아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이 글에서는 고쳐쓰기와 관련한 글쓴이의 경험과 퇴고라는 말의 유래를 소개하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고쳐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의 주제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가)~(나)에서 글쓴이는 학생들에게 글을 고쳐 써 보게 한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소리 내어 읽고 자연스럽게 읽지 않은 부분을 고쳐 써 보게 하거나, 짝과 글을 바꾸어 읽고 서로의 글에 대해 조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 써 보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보게 하면 처음에 보이지 않던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쳐 쓸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나)에 드러난 고쳐쓰기의 방법을 제시함.	6점	총 7점
고쳐쓰기 방법 중 두 가지만 제시함.	-2점	
고쳐쓰기 방법 중 한 가지만 제시함.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라)에서는 자신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어떤 글자를 쓸지 고민하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가도의 이야기에서 고쳐쓰기를 일컫는 '퇴고'라는 말이 유래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를 바탕으로 '퇴고'라는 말의 유래를 제시함.	8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상황에 맞는 표현

0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①

p.13

예시 답안 01 벌레가 새에게 먹히다. 02 ㉠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제 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지만, ㉡은 주어가 남에게 어떤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다. 03 자신이 화분을 깬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기 때문이다. 04 "식탁이 안 닦였네요."라는 말은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지만, "식탁을 안 닦으셨어요."라는 말은 종업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처럼 느껴져 종업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반응이 달랐다.

- 01 능동 표현의 서술어인 '먹히다'를 피동 접사 '-히-'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의 서술어인 '먹히다'로 바꾸고, 원래 문장의 목적어인 '벌레를'을 주어 '벌레가'로 바꾸고, 원래 문장의 주어인 '새'를 '새에게'로 바꾸어 '벌레가 새에게 먹히다.'와 같이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과 ㉡은 (가)의 그림에 제시된 상황을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은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고, ㉡은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의 차이점을 제시함.	4점	총 7점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다)에서 아이가 '와장창'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묻는 할머니에게 "화분이 깨졌어요."라고 대답한 이유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화분을 깬 주체가 자신임을 드러내지 않고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서 아이가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제시함.	6점	총 7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에서 "식탁이 안 닦였네요."라는 말은 피동 표현으로 듣는 사람에게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으로 느껴지는 반면, ㉣의 "식탁을 안 닦으셨어요."라는 말은 능동 표현으로 식탁을 안 닦은 주체인 종업원의 잘못이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의 ㉢과 ㉣에서 종업원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②

p. 14

예시 답안 01 유미가 경미에게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고 말했다.

- 02** (1) 남호가 아버지께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라고 말씀드렸다. (2) 남호가 아버지께 자기가 설거지를 했다고 말씀드렸다. **03** ·수익금은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여질 거예요. → 수익금은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일 거예요. ·친구는 자기가 팝콘을 사겠다고 말했다. → 친구는 자기가 팝콘을 사겠다고 말했다. / 친구는 “내가 팝콘을 살게.”라고 말했다. **04** 그리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 교수는 “계단 오르는 하체 근육과 허리 주변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주제를 뒷받침하고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01**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하므로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옳기면 ‘유미가 경미에게 주말에 같이 놀자고 말했다.’가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바뀐 제시함.	4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나)에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라는 남호의 말을 직접 인용으로 옮길 때에는 남호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하면 되지만, 간접 인용으로 옮길 때에는 인칭 대명사와 높임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과 (2)에 남호의 말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옮겨 제시함.	각 2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수익금은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여질 거예요.’에서 ‘쓰여질’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해서 사용한 과도한 피동 표현이므로 ‘쓰일’이라고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친구는 자기가 팝콘을 사겠다고 말했다.’라는 문장은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친구는 자기가 팝콘을 사겠다고 말했다.’라고 간접 인용으로 고쳐 쓰거나 ‘친구는 “내가 팝콘을 살게.”라고 말했다.’라고 직접 인용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서 잘못된 피동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제시함.	4점	총 8점
(다)에서 잘못된 인용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라)에서는 ‘그리고 재활의학과 ~ 말했다.’라고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계단 오르기 운동이 효과가 뛰어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에서 직접 인용 표현이 쓰인 문장을 찾아 제시함.	4점	총 10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함.	6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마음을 나누는 대화 ①

p. 15

예시 답안 01 정우가 하나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다.

- 02** ㉠은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는 방법이다. **03** 체험 학습 가서 발목 아플까 봐 걱정이구나. **04** (가)와 달리, (나)에서는 아파서 힘든 친구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감하며 대화하면 상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 01** (가)에서 해나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빼어서 아픈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정우가 공감하고 걱정해 주기를 기대했으나 정우가 조심하라고 조언하자 화를 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해나가 정우에게 기대한 반응을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에서 정우는 해나가 한 말을 간추려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가운데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은 어떤 방법인지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나)에서 해나는 발목을 빼어서 아픈 상황에서 곧 있을 체험 학습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으므로, ㉠에는 이러한 해나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내용의 표현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공감하며 대화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발목을 빼어서 아프다고 말하는 해나에게 (가)에서는 정우가 공감하며 대화하지 않자 해나가 정우에게 화를 냈지만, (나)에서는 정우가 공감하며 대화하였기 때문에 해나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감하며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와 (나)의 대화를 비교하여 제시함.	4점	총 10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를 제시함.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마음을 나누는 대화②

p. 16

예시 답안 01 “네가 용돈을 의미 있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02**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정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빠는 용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03** ㉠은 갈등이 생긴 일에 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04** (1)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2) 용돈을 함부로 쓸까 봐 걱정하시는 아빠 마음도 이해해요.

01 (가)에서 아빠는 정우에게 “네가 용돈을 의미 있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정우에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 상처가 되는 표현이다. “이것도 의미 있어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정우의 말은 아빠를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은 표현이므로 아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서 아빠와 정우가 서로에게 상처 준 말을 각각 제시함.	각 2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가)에서 정우와 아빠는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정우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아빠는 용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아빠와 정우의 생각을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에서 정우는 어제 아빠와 대화하면서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일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일에 대해 있는 사실과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중 갈등이 생긴 일에 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중에서 ㉠이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지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1) 정우가 아빠에게 바라는 점은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빠가 이해해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바람을 담아 ㉠을 쓴다. (2) 아빠는 정우가 요즘 들어 연예인 관련 물건을 많이 사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용돈을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으므로 정우를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알고 있음을 담아 ㉡를 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에 아빠에게 바라는 점을 담아 ㉠을 작성함.	5점	총 10점
(2)에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을 담아 ㉡를 작성함.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 어렵지 않아요! 비폭력 대화법

p. 17

예시 답안 01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이고,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이다. **02** ‘너 전달법’으로 표현하였을 때 상대방에게는 비난하는 말이나 강요하는 말로 들리고, 말하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03** 비폭력 대화법이란 ‘나’를 주어로 하여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법이다. 비폭력 대화법은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형식이다. **04** 4시가 지났는데 네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오지 않더라. 기다리느라 지루했어. 약속 시간에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주었으면 해. 앞으로는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줄래?

01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인 ‘너 전달법’과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인 ‘나 전달법’에 대한 설명을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의 개념을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너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말이나 강요하는 말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너 전달법’이 상대와 말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상대와 갈등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하려면 ‘나’를 주어로 하여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과 원하는 것을 말하는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비폭력 대화법은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이라는 네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비폭력 대화법의 개념을 제시함.	3점	총 6점
비폭력 대화법의 형식을 제시함.	3점	
<조건>에 맞지 않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비폭력 대화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기(관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말하기(느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 말하기(필요), 상대방에게 요청하기(부탁)의 네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만나기로 한 친구가 연락도 없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는 친구를 비난하거나 친구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4시가 지났는데 네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오지 않더라.(관찰) 기다리느라 지루했어.(느낌) 약속 시간에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주었으면 해.(필요) 앞으로는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줄래?(부탁)’의 형식으로 비폭력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비폭력 대화법의 형식으로 제시함.	8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개성적 발상과 표현

01 반어와 역설로 표현하기_먼 후일

p. 18

예시 답안 01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02 떠난 입을 잊을 수 없는 마음 03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먼 ~ 잊었노라'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과 같이 각 행에서 3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이 시의 화자는 반어를 사용하여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였다. 반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내고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

0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무척 그리다가'와 같은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 시는 자신을 떠난 입을 잊을 수 없는 마음과 떠난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애달르게 노래한 작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시의 주제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이 시에서는 같은 시어, 동일한 문장 구조, 3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을 제시함.	6점	총 6점
<조건> 1에 맞지 않게 제시함.	-2점	
<조건> 2에 맞지 않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이 시에 쓰인 '잊었노라'라는 표현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반어 표현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독자에게 더욱 깊이 있는 감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시에서 반어가 쓰인 표현을 제시함.	4점	총 10점
그러한 표현의 효과를 제시함.	6점	
<조건>에 맞지 않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반어와 역설로 표현하기_낙타

p. 19

예시 답안 01 • 낙타는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 나도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02 ㉠은 화자가 꿈이 있기에 노력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03 낙타에게 혹이 있어서 더위, 추위, 목마름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화자에게 꿈은 어려움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 04 이 시에서는 역설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 같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꿈의 힘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01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한다. 이 시의 1연과 4연에 쓰인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작가의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는 역설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시에서 역설이 쓰인 표현을 찾아 제시함.	4점	총 4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았거나, 그대로 옮겨 적지 않음.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낙타에게 혹은 더위와 추위, 목마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대상 즉,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낙타에게 혹이 있다면 이 시의 화자에게는 꿈이 있다. 화자는 어렵고 먼 길을 가고 있지만 꿈이 있기에 어려움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꿈'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함.	5점	총 8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이 시의 1연과 4연에서는 역설을 사용하여 낙타에게 혹이 있어서 혼자 갈 때에도 혼자 가는 게 아닌 것처럼 화자에게는 꿈이 있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 시에 쓰인 역설은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시에 쓰인 역설의 효과를 제시함.	6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야기와 영상으로 풍자하기 ①

p.20

예시 답안 01 장어 영감은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 한다. 02 (가)에서 동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특성이, (다)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특성이 드러난다. 03 류이는 슈퍼 달팽이를 상자에서 탈출시켜 도망하게 하려고 상자를 넘어뜨렸다. 04 ㉠에서 류이는 슈퍼 달팽이가 가마솥에 빠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어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 ㉡에서 류이는 슈퍼 달팽이가 죽었다는 생각에 슬프고 절망스러워 큰 소리로 영영 울었다.

01 장어 영감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 인물인데,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달팽이를 먹고 장수한 할머니의 사례를 보고 오래 살고 싶어서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걸 (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장어 영감이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는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몸에 좋다는 동물을 많이 잡아먹고 슈퍼 달팽이까지 잡아먹으려는 장어 영감의 모습에서 탐욕스럽고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성격이 드러난다. 또한 류이와 류이 가족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인정머리 없는 성격이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장어 영감의 특성을 제시함.	6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않음.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나)에서 류이는 요리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상자 안에 갇힌 슈퍼 달팽이를 탈출시키기 위해 상자를 넘어뜨리고 달팽이를 창고 밖으로 밀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서 류이가 상자를 넘어뜨린 이유를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장어 영감네 집에서 달팽이를 탈출시키는 데 실패한 류이는 장어 영감에게 소리치며 항의하지만, 장어 영감의 지시로 요리사가 달팽이를 가마솥에 빠뜨리자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고 는 달팽이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슬픔과 절망을 느껴 영영 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류이가 ㉠, ㉡처럼 행동한 이유와 그 심정을 제시함.	10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않음.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야기와 영상으로 풍자하기 ②

p.21

예시 답안 01 이 글에서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02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한다. 03 (가)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선 첫째 사위가 도끼로 달팽이를 내리쳤으나 허리를 삐끗하고 달팽이는 끄떡도 하지 않는 장면과 (나)에서 화가 난 장어 영감이 아궁이에 던진 달팽이를 꺼내 보다가 달팽이가 얼굴에 들러붙어 화상을 입는 장면에 풍자가 나타난다. 04 이 글에서는 풍자를 사용하여 오래 살기 위해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재미를 주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01 이 글에서는 영생에 대한 욕망으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을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다)~(라)에서 류이는 장어 영감에게 잡아먹힐 뻔한 달팽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기뻐하며 “난 동물은 키우진 않아. 하지만 네가 있고 싶을 땐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도 좋아.”라고 말한다. 달팽이를 대하는 류이의 모습에서 동물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동물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 드러난 류이의 성격을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가)~(라)에서 풍자가 나타난 장면은 (가)와 (나)이다. (가)에서 슈퍼 달팽이를 깨려고 자신 있게 나선 첫째 사위가 소리만 요란하다가 허리를 다친 채 물러나는 장면, (나)에서 화가 난 장어 영감의 얼굴에 뜨거워진 달팽이가 들러붙었다 떨어지자 영감이 팔딱팔딱 뛰다가 요리사에게 업혀 가는 장면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에둘러 비판하는 풍자가 잘 나타난 장면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라)에서 풍자가 나타난 장면을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이 작품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은 달팽이를 잡아먹는 데 실패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풍자를 통해 작가는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영생에 대한 욕심을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 쓰인 풍자의 효과를 제시함.	7점	총 10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 아름다운 흉터

p.22

예시 답안 01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에게 물려 왼손에 흉터가 생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의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가지 끝에 찌혀 손등에 흉터가 생겼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방향마다 고향집에 내려가서 일을 도울 때마다 여러 개의 흉터가 생겼다. 02 사춘기 시절에는 자신의 손에 있는 흉터를 부끄러워했지만 청년기가 되어 흉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03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독자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진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04 이 글의 제목인 '아름다운 흉터'에는 역설이 쓰였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 흉터란 어려움을 성실하게 극복해 낸 흔적이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01 글쓴이의 손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남아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누렁이에게 왼손을 물려서 생긴 흉터,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의 산에서 나무 도둑질을 하다가 손등에 생긴 흉터,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방향마다 고향집에 내려가 집 안일을 돕다가 손가락에 생긴 수많은 흉터가 그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의 손에 세 종류의 흉터가 생기게 된 까닭을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시골에서 도시로 중학교를 진학한 글쓴이는 도시 아이들의 깨끗한 손과 거칠고 흉터가 낡자한 자신의 손을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세월이 흘러 직장에서 만난 한 선배의 말을 듣고 흉터가 어려운 현실을 성실히 살아 낸 흔적임을 깨닫고 흉터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 드러난 흉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독자에게 상처의 흔적인 흉터야말로 삶의 단단한 마디이자 숨은 가치라는 인식을 전달하며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사랑과, 자기 긍정, 타인에 대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이 담긴 표현을 역설이라고 한다. 이 글의 제목인 '아름다운 흉터'는 역설이 쓰인 표현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삶의 가치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제목에 쓰인 표현 방법을 제시함.	4점	총 10점
제목의 의미를 설명함.	6점	
<조건>에 맞지 않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 보는 이와 말하는 이

01 시의 화자

개념 확인문제 p.24

1 화자 2 주제 3 딸기 4 향토적 5 목마름 6 선생님

소단원 기술 예상

p.25~26

01 ③ 02 ⑤ 03 ⑤ 04 ⑤ 05 이 시의 화자는 손님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움으로 자란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란다. 06 ① 07 ③ 08 ⑤ 09 시를 짓는 학생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시의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01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딸기'로, 의인화되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이 시의 화자는 '지(저의)'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에 드러나 있다. ② 원관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직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주로 시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⑤ 이 시에서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02 이 시의 화자인 딸기는 힘들게 먼 길을 짐차에 실려 와 낯선 거리에서 자신을 사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 자신이 떠난 곳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다.

03 이 시의 화자는 멀미에 시달리며 먼 길을 짐차에 실려 와 목마름 속에 손님을 찾는 일은 견딜 수 있지만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하지는 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품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04 <보기>는 시의 화자를 상인으로 바꾸어,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시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보기>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주제는 변함이 없지만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아 향토적인 분위기가 덜하고, 능청스럽고 넉살 좋던 모습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05 이 시의 9행~11행에 화자의 가치가, 12행~14행에는 화자가 손님에게 바라는 바가 잘 드러나 있는데, 이 시의 화자는 손님에게 딸기가 잘 자라려면 햇빛과 비가 있어야 하고 농부의 고된 노동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며 농작물의 가치를 알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시의 화자가 손님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6 (가)에서 말하는 이는 딸기이고, (나)에서 말하는 이는 선생님이다. (나)에서 말하는 이는 시 창작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제를 내 주고 시를 쓰는 학생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다.
- 07 (가)의 화자는 손님들이 농작물의 가치를 알고 재값에 딸기를 사기를 바랄 뿐이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몸값을 후하게 쳐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 08 (나)의 12행에 제시된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은 글감을 찾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져온 글감을 빚댄 표현이다.
- 09 (나)의 화자는 시 창작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선생님이로, 학생들이 시를 쓰는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이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작품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의 특성이 작품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소설의 시점과 서술자

개념 확인문제 p.27

1 서술자 2 시점 3 안, 밖 4 주인공 5 분위기 6 상상

소단원 기출예상

p.28~29

01 ③ 02 ⑤ 03 ③ 04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감자를 주었지만 '나'는 점순이가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여 감자를 거절한다. 05 ④ 06 ⑤ 07 ③ 08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0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02 (라)의 '그렇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를 통해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의 주인공인 '나'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로 등장한다.

04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감자를 건네지만,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나'는 점순이의 생색내는 듯한 말에 마음이 상해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거절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이유와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어 주인공인 '나'의 생각과 심정이 잘 드러나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어수룩한 서술자인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인물, 특히 점순이의 마음이다.

06 '나'는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인지 묻는 점순이의 질문에 대해 될 안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살길을 찾았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대답한 것이지, ⑤와 같이 점순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답한 것이 아니다.

07 이 글은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고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화해와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또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점순이는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일로 상처를 받아 답싸움을 통해 '나'에게 복수를 하면서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계속된 답싸움으로 깊어진 '나'와 점순이의 갈등은 '나'가 점순네 수탉을 죽인 일을 계기로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극적인 화해에 이르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답싸움'의 역할을 제시함.	5점	총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기출예상

p.30

01 ③ 02 ⑤ 03 ⑤ 04 '똥차 방앗간'은 근대화된 기계 문명으로 상징되는 증기 제분소에 밀려 사라질 운명에 처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

01 이 글은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코로나영감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02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장인 정신을 지닌 코로나영감님에 대한 존경심과 연민을 품고 영감님을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⑤는 코로나영감님의 특성에 해당한다.

03 마을에 증기 제분소가 들어서자 코로나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을 찾는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영감님은 일거리를 모두 잃게 된다. 하지만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을 속여 밀을 뺏는 척하며 풍차 방앗간을 지켜왔다.

04 풍차 방앗간은 산업 혁명 이전에 바람을 이용하여 곡물을 가루로 만들던 곳이었지만, 산업 혁명 이후 연료를 사용하여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증기 제분소의 등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글에서 증기 제분소가 근대화된 기계 문명을 상징한다면 풍차 방앗간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풍차 방앗간이 상징하는 바를 제시함.	4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종합 문제

p.31~35

01 ② 02 ⑤ 03 ㉠은 딸기가 잘 자라려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04 ④ 05 ④ 06 ③ 07 ③ 08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건넨 감자를 '나'가 거절한 것에 대한 복수이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를 괴롭힌다. 09 ③ 10 ⑤ 11 순박하고 어수룩하다. 12 ⑤ 13 ⑤ 14 ② 15 ⑤ 16 동백꽃 17 ③ 18 ⑤ 19 ⑤ 20 이 글의 주제는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코로나영감님의 집념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01 (가)의 화자는 딸기로, 자연과 농부의 도움으로 자란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02 <보기>는 (가)의 화자를 딸기에서 상인으로 바꾸어,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쓴 것이다. (가)를 <보기>로 바꾸어 썼을 때, 전달하는 내용과 주제는 변함이 없지만 사투리를 사용하

지 않아 향토적인 분위기가 덜하고, 능청스럽고 너스레 화자의 목소리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3 ㉠은 적당한 햇빛과 비뿐만 아니라 농부의 노동과 노력이 있어야 딸기가 잘 자랄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은 시를 썼다 지우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완성해 가는 학생들의 시를 반짝이는 사극에 빗대어 학생들이 노력 끝에 완성한 시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다. (나)의 화자는 학생들의 시 쓰는 실력보다 학생들이 시를 쓰기 위해 집중하고 씩씩하는 과정에 더 주목하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이 글의 주인공이다. ④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6 (나)에서 '나'는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거절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07 ㉡ '생색'은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을 뜻하는 말이다.

08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나흘 전에 있었던 감자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이다.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나'에게 감자를 주었는데 '나'가 감자를 거절하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점순이의 괴롭힘은 감자 사건에 대한 복수이면서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4점
이유 2가지를 연결하여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9 (다)에서 '나'는 점순네 수탉에게 자기네 수탉이 당하는 모습만 보다가 고추장을 먹인 자기네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자 시원하고 고소하다고 느낀다.

10 <보기>는 서술자를 이 글의 '나'의 수탉으로 바꾸어 (나)를 다시 쓴 것이므로 이 글의 '나'의 수탉이 고추장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보고 듣고 관찰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서술자만 바뀌었을 뿐 주된 줄거리는 같다. ② 서술자가 이 글의 '나'의 수탉으로 바뀌었다. ③ 1인칭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다. ④ '나'의 속마음을 서술한 것은 (나)이다.

11 점순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나'가 점순네 수탉을 이기기 위해 자기네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점순네 수탉에게 자기네 수탉이 공격당하자 고추장을 더 먹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모습에서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라)에 드러난 '나'의 성격을 제시함.	3점	총 4점
글자 수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2**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앗밭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복수이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지만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따라서 ㉠에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향한 원망,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 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13** '나'는 이성을 잃고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지만 점순이가 이를 비밀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점순이 어머니가 역정을 낸 이유는 점순이가 바느질을 하다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나'가 점순네 닭을 죽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
- 14** '나'의 관심을 끌고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집 닭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점, '나'의 반응과 동선을 미리 예상한 듯이 행동하고 말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점순이가 영악하고 집요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15** 이 글에서는 점순이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서술자로 인해 해학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점순이가 한 말의 의도를 모른 채 무턱대고 대답하는 장면인 ㉡과,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깨닫지 못한 채로 서술하는 장면인 ㉢이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내어 해학성을 높인다.
- 16** 이 소설에 등장하는 동백꽃은 생강나무꽃으로 3월에 피는 꽃이므로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바위 틈에 노랗게 피어 동백꽃의 모습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 17**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코르니유 영감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18** (다)에서 코르니유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이 풍차 방앗간으로 가져온 밀을 보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하고 있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19** (가)에서 코르니유 영감님은 증기 제분소에서 빵을 만들어서 는 안 되고 미스트랄과 트라몽탄 바람으로 (풍차를 돌려 빵은 밀로) 빵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으므로 영감님이 생각하는 훌륭한 빵은 ㉤이다.
- 20** 이 글은 산업 혁명 이후 등장한 증기 제분소로 인해 풍차 방앗간이 몰락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코르니유 영감님의 집념과 그를 도우려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린 소설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의 주제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핵심

마무리 체크

p.36~37

- 01** 딸기 **02** 사람 **03** 주제 **04** 농부 **05** 가치 **06** 농작물
07 글감 **08** 관찰 **09** 주인공 **10** 의도 **11** 해학성 **12** 순박
13 낭만적 **14** 사랑 **15** 역순행 **16** 심리

2 설명과 이해

01 설명하는 글 읽기

개념 확인문제

p.38

- 1** 이해 **2** 정의 **3** 예시 **4** 대조 **5** 결과 **6** 기준

소단원

기출 예상

p.39~40

- 01** ㉠ **02** ㉢ **03** ㉤ **04**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얼굴의 땀과 기름기로 인해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같은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부심이 생긴다. **05** ㉢ **06** ㉢ **07** ㉡ **08** ㉢에서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검은색 물체와 흰색 물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왜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 01** 이 글은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야구 경기와 관련한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
- 02** 정반사는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것임을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 ㉢에서는 야구 선수들에게 눈부심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 쓰인 설명 방법은 인과이다. 분석

은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데, ㉠에는 쓰이지 않았다.

04 피부에는 굴곡이 있어 반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눈부심이 생기지 않지만, 얼굴에 땀이나 기름기가 솟아나면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져 같은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 눈부심이 생긴다.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눈부심이 생기는 이유는 이처럼 얼굴에 솟아난 땀과 기름기로 인해 매끄러워진 피부 표면에서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야구 선수들에게 눈부심이 생기는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나)에서 태양 빛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시광선과 함께 적외선과 자외선이 제시되지만,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과 자외선의 특성이라든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06 ㉠에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설명 방법이 쓰인 것은 ③이다. ① 인과 ② 정의 ④ 예시 ⑤ 비교와 대조

07 ㉠에서는 주황색 굴과 빨간 장미, 노란 개나리를 예로 들어 물체의 색깔이 결정되는 원리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방법이 쓰였다. ① 정의 ③ 분석 ④ 분류와 구분 ⑤ 비교와 대조

08 ㉠에서는 검은색 물체와 흰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정반대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와 관련해 각 물체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쓰인 설명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함.	각 1점	총 4점
그러한 설명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각각 제시함.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점검·조정하며 설명하는 글 쓰기

개념 확인문제

p.41

1 매체 2 자료 3 개요 4 쓰기 원리 5 독자

소단원

기출 예상

p.42~43

01 ④ **02** ⑤ **03** ⑤ **04** (나)에서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한다. **05** ④ **06** ① **07** ⑤ **08** 눈물 기관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여 독자가 눈물의 생성과 배출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01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 중, (가)는 글의 주제와 목적, 매체, 예상 독자를 정하고 예상 독자의 특징을 분석하는 계획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④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에 해당한다.

02 (나)는 (가)에서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눈물'과 관련해 떠오르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눈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⑤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다)는 눈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눈물의 뜻'을 설명하면서 '중간'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눈물의 종류'가 아니라 '눈물의 뜻'을 맨 처음으로 읊기는 것이 적절하다.

04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들을 적고 나서, 책,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나)에 이어 해야 할 일을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전략으로는 개요 짜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전략이다. (가)는 표현하기 단계로 글쓰이는 준비한 내용을 글로 쓰는 활동을 하고 있다.

06 (나)에서 글쓰이는 '눈물'이라는 제목을 "눈물, 너의 정체는 뭐니?"와 같이 수정하였는데, 제목을 고쳐 쓴 이유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07 '누낭(淚囊)'은 눈물관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모이는 주머니를 뜻하는 단어로,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따라서 '누낭'을 '눈물주머니'로 수정할 때 떠올렸을 생각으로는 ⑤가 적절하다.

08 ㉠은 눈물샘에서 생성된 눈물이 눈물관과 눈물점, 눈물소관과 눈물주머니, 코눈물관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을 추가하여 얻는 효과를 제시함.	3점	총 5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③ 02 ③ 03 ③ 04 ㉠은 훌륭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고쳐쓰기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01 이 글에서는 내용을 더 잘 전달하고 감명을 주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고쳐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강조하는 글쓰기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③이다.
- 02 (나)에서 '퇴고'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등장하는 가도가 한유의 말에 따라 들어갈 단어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퇴고'의 유래와 여러 번 생각하여 글을 고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하는 태도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고쳐야 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03 ③은 이 글에 제시된 고쳐쓰기의 방법이 아닐뿐더러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04 ㉠은 헤밍웨이가 자신이 쓴 글을 수십 번 고쳐 쓰면서 한 말로 처음 쓴 글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고쳐 써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서 ㉠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② 02 ② 03 ③ 04 ㉠에서는 야구 선수에게 눈부심이 생기는 원인을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05 ② 06 ③ 07 ③ 08 ④ 09 독도의 주변 바다에는 해양 자원이 풍부하여 매우 가치가 높다. 10 ⑤ 11 ⑤ 12 ⑤ 13 ④ 14 눈물이 없으면 눈을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렵고 눈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 눈물이 없으면 눈의 노폐물이나 이물질을 씻어 내기 어렵고 눈을 감염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15 ② 16 ① 17 (나)에서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눈물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18 ② 19 ③ 20 ② 21 ㉠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쓰고 고친 글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 01 (라)에서는 대조와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와 흡수에 있어서 검은색 물체와 흰색 물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각 왜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 02 ㉠에는 정의, ㉡에는 구분, ㉢에는 정의, ㉣에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3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피부 표면에 생기는 땀과 기름기로 인해 눈부심이 심해지는데, 검은색 물체가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은 ③이다.

04 ㉠에서는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얼굴의 땀과 기름기로 인해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같은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부심이 생긴다는 내용을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시함.	3점	총 7점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제시함.	3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나)에서는 서도와 동도를 중심으로 하여 독도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06 독도는 과거에 '석도'라고 불렸지만 1900년대부터 독도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음을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7 ㉡에서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도를 구성하는 암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는 정의, ㉢과 ㉣에는 대조, ㉤에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08 ㉠에서는 해양 심층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의란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④의 경우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대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인과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여러 차례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도에는 해양 심층수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마)에 제시된 독도의 가치를 설명함.	3점	총 4점
글자 수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0 이 글에서 사람이 평생 흘리는 눈물의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 눈물의 표면을 적시는 눈물은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의 3층 구조를 이루는데, 점액층은 수성층이 눈 표면에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름으로 된 지방층은 맨 바깥에서 수성층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한다.
- 12 ㉠은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반응

하여 흘리는 눈물인 반사적 눈물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추가한 것이므로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13 설명하는 글 쓰기의 과정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㉔는 고쳐쓰기, ㉕는 표현하기, ㉖는 계획하기, ㉗는 내용 조직하기, 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조정해야 할 일에 해당하므로 순서대로 배열하면 ㉖ - ㉘ - ㉗ - ㉕이다.

14 (나)에서는 눈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눈물은 안구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물질 등을 씻어 내고 눈을 각종 감염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눈물이 없다면 이러한 역할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를 바탕으로 눈물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함.	각 2점	총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5 ㉑에서는 눈물의 뜻을, ㉒에서는 눈물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㉑에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히는 정의의 방법이, ㉒에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6 ㉑에서는 눈물을 기본적 눈물, 반사적 눈물, 정서적 눈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②, ③ 정의가 사용되었다. ④ 예시가 사용되었다. ⑤ 대조가 사용되었다.

17 (나)에서는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눈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 쓰인 설명 방법을 제시함.	2점	총 5점
(나)에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제시함.	2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8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글쓰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고쳐쓰기를 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좋은 글을 쓰려면 고쳐쓰기가 꼭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19 이 글에서 글쓴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쓰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글을 소리 내어 읽거나, 짝과 바꾸어 읽고 상호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 쓰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바탕으로 고쳐 쓰게 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자신의 글을 읽어 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㉑의 방법은 활용하지 않았다.

20 (나)에는 자신이 쓴 글을 작게 소리 내어 읽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친구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의 열띤 목소리로 가득 찬 글쓰기 수업 시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므로 ㉒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1 학생들이 고쳐 쓴 원고 중에는 잘 고쳐 쓴 글도 있고, 많이 다듬어야 할 글도 있었지만 정성을 들이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쓰고 고쳐 쓴 글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글쓴이는 ㉑과 같이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㉑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함.	3점	총 4점
글자 수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핵심 마무리 체크

p.50~51

- 01 검정 02 정의 03 구분 04 인과 05 분석 06 예시 07 대조 08 눈부심 09 고쳐쓰기 10 계획 11 자료 12 순서 13 출처 14 독자 15 제목 16 분석

3 상황에 맞는 표현

0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개념 확인문제 p.52

- 1 피동 2 인용 3 직접 인용 4 간접 인용 5 객관적 6 생생, 간결

소단원 기출 예상

p.53~54

- 01 ② 02 ⑤ 03 ⑤ 04 “제가 화분을 깬어요.” 아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화분을 깬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05 ⑤ 06 ① 07 ④ 08 시우가 경미에게 자기도 같이 농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 01 ㉠은 능동 표현, ㉡은 피동 표현으로 ㉠을 ㉡으로 바꾸면서 ㉠의 주어인 '유미가'가 ㉡의 부사어인 '유미에게'가 되었다.
- 02 (다)에서 손님이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을 때는 종업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처럼 들려 종업원의 기분이 상했지만, 손님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을 때는 식탁 위의 지저분함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말처럼 들려서 종업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 수 있었다.
- 03 ㉢은 능동 표현에 피동 접사 '-되다'를 붙여서 피동 표현으로 만들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에서는 '고고학자'가 강조된다. ② ㉡에서는 '유물'이 강조된다. ③ ㉢은 능동 표현이고, ㉣은 피동 표현이다. ④ ㉣에서 '고고학자에 의해'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므로 생략 가능하다.

- 04 “화분이 깨졌어요.”라는 피동 표현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화분을 깬어요.”라는 능동 표현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따라서 아이가 할머니에게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화분을 깬 사람이 자신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아이가 한 말을 조건에 맞게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제시함.	3점	총 6점
아이가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나)에서 남호가 한 말 속의 '제가'와 '했어요'는 듣는 사람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쓴 것이므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남호가 아버지께 자기가 설거지를 했다고 말씀드렸다.'와 같이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 06 (다)의 '수익금이 많이 모였어요.'에는 '모이다'의 피동 표현인 '모이다'가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잘못 쓰인 피동 표현이 아니다.

Clinic **오답 강의**

②, ④ '친구는 자기가 팝콘을 사겠다고 말했다.'는 간접 인용에 '라고'를 써서 잘못된 표현이다. '사겠다고 말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옳다. ③, ⑤ '수익금은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여질 거예요.'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가 중복으로 사용된 잘못 쓰인 피동 표현이므로 '쓰일 거예요.'로 고쳐 쓰는 것이 옳다.

- 07 (라)에서 기자는 국립 공원 탐방 예약제 시행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의견만을 인용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치우친 관점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라)와 같은 기사를 읽을 때에는 어느 한쪽의 관점에 치우친 내용만을 인용하고 있지 않은지 인용 표현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08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하는데,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칭 대명사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옮기면 '시우가 경미에게 자기도 농구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옮겨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마음을 나누는 대화

개념 확인문제

p.55

1 공감 2 집중 3 재구성 4 차이 5 구체적 6 감성

소단원 **기출 예상**

p.56~57

- 01 ② 02 ⑤ 03 ④ 04 해나는 정우가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주기를 바랐는데, 정우가 공감해 주지 않고 조심하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이다. 05 ⑤ 06 ⑤ 07 ④ 08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저에게는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 01 (나)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에는 ㉡와 같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해나의 처지에 공감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2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에는 ㉤와 같이 해나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해나의 상태를 걱정스러워하는 몸짓이나 표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나)에서 해나는 발목을 빼어 아픈 상태에서 곧 있을 체험 학습을 떠올리며 발목이 아파서 체험 학습을 가지 못하거나, 체험 학습을 가더라도 발목이 아플까 봐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나의 마음을 이해하며 ㉣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가)에서 해나는 정우에게 발목을 빼어서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며 정우가 자신의 처지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우는 해나가 평소에 서두르는 습관이 있음을 지적하였을 뿐 해나의 처지에 공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우와 해나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가)에서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산 것에 대해 정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빠는 용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06 ⑤의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 사는 것을 용돈 낭비라고 말씀하셔서'는 갈등이 생긴 일에 관해 객관적으로 전달한 부분이고, '정말 속상했어요.'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한 부분에 해당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의 '아빠가 어제 저를 비난하셔서'는 갈등이 생긴 일에 관한 주관적인 표현이다. ② 갈등이 생긴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④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다.

07 ㉠에서 정우는 용돈을 함부로 쓸까 봐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아빠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

08 정우가 아빠에게 바라는 것은 정우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을 아빠가 이해해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되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제시함.	3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더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58

- 01 ⑤ 02 ⑤ 03 ② 04 '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상대에게는 부탁하는 말로 들리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차분해져 상대와 갈등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 01 '나 전달법'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느낌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말로 들린다. ⑤는 '너 전달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2 ⑤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인 '나 전달법'에 해당한다.
- 03 비폭력 대화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①은 필요, ③은 부탁, ④는 느낌, ⑤는 관찰이라는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②는 '너 전달법'으로 비폭력 대화가 아니다.
- 04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느낌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말로 들리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차분해진다는 것(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 전달법'으로 말할 때의 효과를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종합 문제

p.59~63

01 ⑤ 02 ① 03 ⑤ 04 저는 대규모 홍수,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그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식량난의 원인을 추정하는 주체가 드러나 주관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는 느낌을 준다. 05 ⑤ 06 ④ 07 ③ 08 시골에 간 유미는 그 마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09 ④ 10 ③ 11 ③ 12 아이고, 저런 발목을 빼어서 많이 아프겠구나. 13 ② 14 ⑤ 15 ② 16 (가)에서 아빠는 정우가 연예인 관련 물건을 많이 사느라 용돈을 함부로 쓸까 봐 걱정한다. 17 ② 18 ⑤ 19 ③ 20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비폭력 대화법을 소개하고 비폭력 대화법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이다.

- 01 (다)에서 아이는, 화분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묻는 할머니의 질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화분이 깨졌어요."라고 말함으로써 화분을 깬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화분을 깬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아이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2 '뉘다'의 피동 표현은 '뉘이다'로, '일정한 범위나 공간이 빈틈없이 휩싸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 03 ㉠는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근거로 xx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간접 인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는 계단 오르기가 빠르게 걷기에 비해 열량 소모가 더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4 기사를 주어로 삼아 ㉠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저는 대규모 홍수,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그 원인으로 추정합니다.'가 된다. ㉠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인상을 주던 ㉠와 달리 식량난의 원인을 추정하는 주체가 기자임이 드러나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전달한다는 느낌을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를 기사를 주어로 하여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씀.	3점	총 6점
㉠를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 듣는 사람에게 주는 느낌을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④, ⑥는 (가)의 대화를 직접 인용으로 옮긴 것이다. 간접 인용 표현을 만들 때에는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해야 하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다)에서 경미의 말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옮길 때에는 시간 표현과 조사 등을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직접 인용으로는 '지난주에 경미가 "다음 주에 꼭 영화 보러 가자."라고 약속했다.', 간접 인용으로는 '지난주에 경미가 이번 주에 꼭 영화 보러 가자고 약속했다.'로 옮길 수 있다.

07 ㉠과 ㉡은 같은 상황에 대한 글로, ㉠은 준호와 은기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주고 ㉡은 간접 인용하여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인물의 말에 담긴 뜻은 달라지지 않았다.

08 <보기>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지시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이'는 유미의 입장에서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직접 인용의 '이'를 간접 인용에서는 '그'로 바꾸고, 조사 '고'를 사용하여 옮기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9 (가)에서 해나가 정우에게 발목을 빼어서 아파서 힘들다고 말하자 정우는 말없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해나의 부주의함을 언급하는 말을 하여 해나를 화나게 했으므로 ④는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0 (나)에 따르면 상대의 말을 분석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11 (나)의 답변에 따라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이루어지면 정우와 해나는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해나 스스로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는 자신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12 (나)에서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발목을 빼어서 아프고 힘든 해나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며 이해하는 내용으로 정우의 말을 바꾸어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우의 말을 공감하는 말로 바꾸어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3 (가)에서 정우와 아빠는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켰다.

14 (가)에서 정우는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빠는 정우의 그러한 행동이 용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5 정우와 아빠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

되었다.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할 때에는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며 요청해야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6 (가)에서 아빠는 정우의 방에 연예인 관련 물건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정우가 최근에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데 용돈을 헤프게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서 아빠가 걱정하는 바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7 '너 전달법'으로 말하면 상대에게 비난하는 말이나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②는 '나 전달법'으로 말할 때의 효과에 해당한다.

18 ⑤는 '나'를 주어로 하여 내가 처한 상황이나 느낌을 알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탁하는 말로 들리는 '나 전달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너 전달법'에 해당하는 말이다.

19 비폭력 대화법은 '나 전달법'이다. 그런데 ③은 '(너) 이렇게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의도가 대체 뭐니?'와 같이 주어가 '너'인 문장으로, 상대에게 비난이나 강요의 말로 들릴 수 있는 '너 전달법'이 해당한다.

20 이 글에서 글쓴이는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의 차이를 설명한 다음, '나 전달법'이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것과 비폭력 대화법의 형식을 소개하며 일상에서 비폭력 대화법을 실천해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핵심 마무리 체크 p.64~65

- 01 당함 02 접사 03 주체 04 객관 05 라고 06 인칭 07 설득력 08 관점 09 공감 10 감정 11 집중 12 신뢰 13 생각 14 차이 15 원만 16 존중

4 개성적 발상과 표현

01 반어와 역설로 표현하기

개념 확인문제 p.66

- 1 반어 2 심리 3 독자 4 역설 5 진실 6 참신

소단원 기출 예상 p.67~68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이 시의 화자는 ㉠을 통해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07 ② 08 ③ 09 ④ 10 ④ 11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 화자에게 꿈이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01 이 시는 '먼 훗날'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어느 날, 당신이 찾아온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3음보의 울격이 드러난다. ②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청유형의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02 미래에 '당신'이 자신을 찾는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이 시에서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의인 ③ 상징 ④ 은유 ⑤ 풍자

04 ㉠에는 반어법이 쓰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속에 들어 있는 의미가 다르다. 화자의 의도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화자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들어 깊이 있는 감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05 인터뷰를 한 시민의 의도는 화창한 날씨가 기대하고 나들이를 왔는데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려 당황스럽다는 것이므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날씨가 나쁘다는 내용을 반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6 ㉠은 반어가 쓰인 표현으로, ㉠을 통해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 '당신'이 그림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의 화자가 ㉠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7 이 시는 1~3연의 전반부와 4~6연의 후반부가 유사한 내용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반부가 낙타에게 후이 있어 어려움을 견디며 간다는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화자인 '나'에게 꿈이 있어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08 '아직 멀었'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까지는 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자는 '아직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자에게는 꿈이 있기에 노력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9 ㉠에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이 담겨 있는 표현인 역설이 사용되었다. ㉣는 반어에 해당한다.

10 화자가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닌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화자에게 '꿈'은 어려움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이 시에서 화자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이 시의 '낙타는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나도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에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역설이 쓰인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야기와 영상으로 풍자하기

개념 확인문제 p.69

- 1 풍자 2 재미 3 류이 4 욕심 5 절정 6 동물

01 ④ 02 ③ 03 ⑤ 04 슈퍼 달팽이가 중요한 이유는 연구소의 오랜 실험 끝에 슈퍼 달팽이에서 나온 점액질 성분으로 인간의 영생에 대한 꿈을 거의 실현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05 ③ 06 ④ 07 ③ 08 이 소설에서는 영생에 대한 욕망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01 이 글에서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이 슈퍼 달팽이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영생에 대한 욕망과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슈퍼 달팽이를 의인화하여 슈퍼 달팽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간의 탐욕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사라진 슈퍼 달팽이가 장어 영감에게 잡혀 잡아먹힐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류이는 깜짝 놀라고 절망스러운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 03 (다)의 내용으로 보아 장어 영감은 몸에 좋다는 건 뭐든 다 먹는 욕심 많은 인물이므로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과 같이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04 (가)의 '중요한 건 오랜 실험 끝에 이 달팽이에서 나온 점액질 성분으로 인간의 영생에 대한 꿈을 거의 실현할 단계에 이르렀는데'를 통해 연구소에서 슈퍼 달팽이가 중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연구소에서 슈퍼 달팽이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다)에서 둘째 사위가 큰 망치를 들고 나와 연달아 내려쳤지만 (슈퍼 달팽이가) 여전히 그대로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류이는 달팽이가 멈추면 다시 굴러 탈출시키기 위해 달팽이를 쫓아갔다.
 ② 장어 영감은 류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리사에게 소리쳤다. ④ 아궁이에서 꺼낸 달팽이는 죽지 않고 껍데기 속에서 나와 장어 영감의 얼굴에 들러붙었다. ⑤ 류이는 달팽이를 키우지는 않기로 했으며 달팽이가 원하는 만큼 류이의 집에 머물다가 원할 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06 (다)에서 덩치가 큰 둘째 사위가 큰 망치로 달팽이 껍데기를 내려쳤으나 슈퍼 달팽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 장면과, (라)에서 아궁이에 던져 새까맣게 변한 슈퍼 달팽이를 보려던 장어 영감이 껍데기 속에서 나온 달팽이가 얼굴에 들러붙는 바람에 화상을 입는 장면에서 풍자가 잘 드러난다.
- 07 이 글에서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서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알 수 있다. ③은 류이에게 해당하는 설명이다.

08 이 소설에서 풍자의 대상은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이다. 작가는 풍자를 사용하여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어 영감 가족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소설에 쓰인 풍자의 효과를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⑤ 02 ③ 03 ③ 04 (나), 직장 선배의 말을 통해 흥터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던 유년 시절의 부끄러운 흔적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흔적으로 바뀌었다.

- 01 이 글은 자신의 흥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을 뿐,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부 격차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02 (가)에 따르면 글쓴이의 손에 남아 있는 흥터는 세 종류인데, 누렁이에게 물린 자국,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가지에 찍힌 자국, 논밭갈이와 푸나무를 하다가 낮에 찢린 자국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자국에 대한 설명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03 이 글의 제목인 '아름다운 흥터'에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흥터'에 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이 담겨 있는 표현인 역설이 쓰였다. ③은 반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4 (나)에서 글쓴이는 사춘기 시절 손에 있는 흥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청년기가 되어 만난 직장 선배의 말을 통해 흥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흥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드러난 문단 기호를 제시함.	1점	총 5점
흥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시함.	3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화자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보기>와 달리 ㉠에서는 반어를 사용하고 있어 독자가 화자의 속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화자의 마음을 더욱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06 ⑤ 07 ① 08 ② 09 ④ 10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꿈'의 힘 11 ② 12 ⑤ 13 ⑤ 14 슈퍼 달팽이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은 다행이지만,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15 ③ 16 ⑤ 17 ⑤ 18 장어 영감은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19 ④ 20 ⑤ 21 ⑤ 22 슈퍼 달팽이를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슈퍼 달팽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01 (가)의 화자는 먼 훗날 입을 '잇었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잇을 수 없는 마음을 반어로 나타낸 것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2 (가)에서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향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 03 (가)에서는 각 행마다 세 번씩 끊어 읽기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운율(㉠), '잇었노라'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 '~면 ~ 잇었노라'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이 느껴진다. 하지만 ㉣와 같이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 04 (나)의 화자가 낙타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으나 의인화하거나 '강인한 품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⑤ 모순이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인 역설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어려움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꿈'과 유사성이 있다. ④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 구조가 유사하다.

- 05 ㉠에는 반어가 쓰였기 때문에 독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속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고, <보기>에는 반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은 <보기>에 비해 독자로 하여금 깊이 있는 감상을 유도하고 화자의 마음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와 ㉠의 표현을 비교하여 제시함.	3점	총 6점
㉠의 표현 효과를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6 ㉠ '먼 훗날'은 미래의 불확실한 어느 날을 화자가 가정한 것이 지 입을 만나기로 약속된 날이 아니다.
- 07 ㉡에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이 담긴 표현 방법인 역설이 사용되었다. ㉢~㉤도 겉으로는 모순이지만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 가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역설 표현이다. ㉣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할 뿐 역설이 쓰이지 않았다.

- 08 ① ㉡과 ㉢에는 모두 역설이 쓰였다. ③ ㉣의 이유는 낙타에게 흠이 있기 때문이다. ④ ㉤은 화자에게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주는 꿈이 있음을 의미한다. ⑤ ㉡과 ㉢은 낙타와 화자가 어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 09 <보기>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 '뽑다'와 '심다'를 사용하여 '뽑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는 역설이 쓰인 표현으로,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는 반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쓰인 표현이 아니다.

- 10 (나)는 혼자 사막을 건너는 낙타에게 흠이 있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화자에게는 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의 주제를 제시함.	3점	총 4점
글자 수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1 이 글에서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영생에 향한 욕심 때문에 동물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12 ㉠은 인간의 영생을 연구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소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3 류이는 슈퍼 달팽이를 우리 같은 데 넣어두지 않은 걸 후회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잡아먹는 건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슈퍼 달팽이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내용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이후로 슈퍼 달팽이가 사람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게 된 상황에서 류이는 사라진 달팽이가 안전한 곳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달팽이를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이유를 제시함.	4점	총 6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5 (다)에서 류이네 가족이 장어 영감의 집에 도착했지만 장어 영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류이네 가족은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온 것처럼 불편해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16 ㉢에서 류이가 상자를 넘어뜨린 이유는 요리사의 통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리사가 통화하는 동안 상자에 갇힌 달팽이를 창고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이다.

실전 모의고사 1회

p.81~86

17 (나)~(다)에서 장어 영감은 류이네 가족을 초대하지만 정작 류이네 가족을 반기지 않는 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18 장어 영감은 달팽이를 먹고 장수한 할머니가 나온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 슈퍼 달팽이를 함께 잡아먹으려고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장어 영감이 슈퍼 달팽이를 잡은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9 이 글에서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은 영생에 대한 욕망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으로, 풍자의 대상인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장면에서 독자는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0 이 글에서 장어 영감과 그의 사위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제시된 부분은 슈퍼 달팽이의 껍데기를 깨려다 실패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장어 영감과 사위들이 서로 슈퍼 달팽이를 차지하려고 다투지는 않았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1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은 슈퍼 달팽이가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여러 위기를 겪고도 무사한 슈퍼 달팽이를 본 류이가 상상한 말로, 슈퍼 달팽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안도한 류이의 마음이 담긴 말이다.

22 (바)에서 류이는 달팽이에게 류이 가족 곁에 있고 싶을 땐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도 좋다고 말하며 달팽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함께 가족사진도 찍는다. 이는 장어 영감 같은 사람이 달팽이를 함부로 훔쳐 가지 않도록 달팽이를 류이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달팽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가족사진을 찍은 이유를 제시함.	3점	총 4점
<조건>에 맞게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맥심 마무리 체크

p.78~79

- 01 그리움 02 잊었노라 03 미래 04 3 05 꿈 06 흑 07 강조 08 힘 09 영생 10 탈출 11 장어 12 의기양양 13 비판 14 생명 15 류이 16 소유물

01 ⑤ 02 ① 03 ⑤ 04 (가)의 화자는 딸기이고, <보기>의 화자는 귀뚜라미이다. 두 화자 모두 의인화되어 있고 상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05 ④ 06 ① 07 ⑤ 08 ② 09 (나)의 화자는 시를 창작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선생님이다. 이를 통해 '시를 짓는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0 ③ 11 ③ 12 '나'를 향한 점순이의 애정이 담겨 있는 소재로,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13 ② 14 ① 15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나'가 감자를 받지 않아 당황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등 16 ③ 17 ⑤ 18 ④ 19 ① 20 ③ 21 ④ 22 둔하고 눈치 없는 서술자의 특성이 웃음을 유발하며 해학성을 강조한다. 23 ④ 24 ③ 25 '증기 제분소'와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풍차 방앗간'이다.

01 이 시의 화자는 사람이 아닌 '딸기'이므로 '멀미도 가시기 전에'라는 표현은 장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화자인 딸기가 겪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02 (가)의 화자는 딸기로, 사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를 읽는 재미와 함께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사투리를 써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3 (가)에는 화자가 사투리를 써서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나)에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시의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의 4행에서 '지는' '제'의 사투리로 화자 '나'가 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가)에서는 딸기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였지만, (나)에는 의인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직유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④ (가)와 (나)에 시간의 이동이나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04 (가)의 화자인 딸기와 <보기>의 화자인 귀뚜라미 모두 의인화된 존재이다. (가)에서는 딸기가 손님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말하고 있고, <보기>에서 귀뚜라미는 엄마를 잃고 우는 아이에게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이 외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와 <보기>의 화자를 바르게 서술함.	각 1점	총 4점
(가)와 <보기> 화자의 공통점을 알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이 시에서는 '딸기'가 사투리를 사용하며 말해서 능청스럽고 녀석 좋은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이에 비해 <보기>는 유쾌한 분위기가 덜 드러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이 시와 <보기>의 화자 모두 딸기를 시는 손님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은 같다. ② 이 시의 화자는 딸기이고, <보기>의 화자는 딸기를 파는 상인이다. ③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딸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⑤ 이 시와 <보기>의 화자 모두 손님에게 딸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 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관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06 (가)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기까지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가 있었으므로 농작물을 사는 손님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주제를 딸기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07 ㉠은 화자인 딸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는 대상으로, 싼값에 딸기를 많이 사 가려는 사람들, 농산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은 딸기가 실제 이 거리를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딸기가 그만큼 먼 거리를 짐차에 실려 힘들게 왔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② ㉠은 딸기가 뿌리를 내린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팔릴 낫선 곳에서 자신을 사갈 손님을 찾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은 딸기가 잘 자라려면 햇빛과 비가 있어야 하고, 농부의 노동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④ ㉠은 화자가 자신의 가치보다 평가절하된 것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08 (가)에서 화자인 딸기는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딸기는 '지뻘 한 장'이 자신의 가치보다 평가절하된 것이라고 느껴 몹쓸 후회 처달라고 말할 뿐 자신의 맛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인 딸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줬으면 하는 대상은 농부가 아니라 딸기를 사는 손님들이다. ④ 화자는 목마름은 견딜 수 있다고 했으므로 딸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 목마름은 견딜만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화자인 딸기가 먼 길을 힘들게 온 것은 맞지만 자신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09 (나)의 화자는 시를 창작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선생님으로, 학생들이 시를 쓰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이를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를 통해 '시를 짓는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이라는 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의 화자를 알맞게 서술함.	1점	총 4점
시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밝힘.	1점	
화자의 특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0 ㉠, ㉡, ㉢, ㉣는 시를 쓰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고, ㉤는 학생들이 가져온 글감을 비유한 것이다.

11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1930년대이기는 하지만 이 소설의 내용에서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농민들의 삶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이 글에서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첫 애정 표현으로,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로 관심과 호의를 드러낸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나'가 감자를 거절하면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감자의 의미를 알맞게 서술함.	2점	총 4점
소설에서의 감자의 역할을 알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3 이 소설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

다. '나'의 가족이 마을로 오면서 점순이네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이러한 집안 관계를 우려한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점순이와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후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로 호감을 표현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새빨개진 얼굴이 되어 눈독으로 달아났으며 이에 대한 분풀이와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닭싸움을 붙이고, 그것을 '나'가 발견한 것이다.

14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무뚝뚝하고 둔하며 순박하고 어수룩한 성격이다.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했으며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5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것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무안하고 화가났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점순이가 ㉠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서술함.	2점	총 4점
점순이의 심리가 드러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6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고 싶고,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나'의 집 씨암탉을 괴롭히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점순이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②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건넸다. ④ '나'와 점순이는 평소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둘이 갈등을 겪게 된 원인은 '감자'이다. ⑤ '나'의 어머니는 집안 관계 때문에 '나'에게 점순이와 붙어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17 '암팡스레'는 '몸은 작아도 야무지고 다부진 면이 있게'라는 뜻이다.

18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 안의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19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나'가 영영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누그러지고 안쓰러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소하게 여기고 더 놀려 주어야겠다고 마음먹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20 이 소설에서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결됨을 드러내고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려주며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나'와 점순이에게 닥칠 고난과는 관련이 없다.

21 점순이가 뒤에 떠밀려 쓰러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2 (마)에서 '나'는 아직도 점순이의 생각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어 '명색도 모르건만' 무턱대고 대답하고 있고, 점순이가 어깨를 밀어 쓰러뜨린 것을 뒤에 떠밀려 쓰러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통해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나'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둔하고 눈치 없는 '나'의 성격은 해학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소가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마)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서술함	2점	총 4점
서술자의 특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3**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 안의 서술자 '나'가 주인공 '코르니유 영감님'과 주변의 일들을 관찰하여 서술하며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24** 이 소설의 서술자는 코르니유 영감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
- 25**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하며, 산업 혁명이 전에 바람을 이용하여 곡물을 가루로 만들던 곳은 '풍차 방앗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조건> 1에 맞게 서술함.	2점	총 4점
<조건> 2에 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실전 모의고사 2 회**

p.87~92

-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이 글은 야구 선수가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가 사용되었다. **06** ② **07** ① **08** 검정 테이프가 햇빛과 야구 선수의 피부에서 반사된 빛을 모두 흡수하여 눈부심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09** ② **10** ② **11** ④ **12** ④ **13** (나)에서 서도와 동도의 지리적 특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14** ④ **15** ④ **16** ③ **17**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눈물의 뜻'을 맨 처음으로 옮기고 '눈물의 역할'을 '눈물의 성분과 구조'의 뒤로 옮겼다. **18** ④ **19** ⑤ **20** 독자가 눈물 기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자료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나)가 가장 적절하다. **21** ④ **22** ③ **23** ② **24** ④ **25** ③

-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다.
- 02** 이 글에서는 야구 선수의 눈부심을 줄여 주는 검정 테이프에 대해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소재가 아니다.
- 03** ①은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히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 예시, ② 분석, ④ 인과, ⑤ 구분

- 04** ①은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를 설명하고 있다. ① 정의, ② 인과, ③ 예시, ⑤ 분석
- 05** 이 글은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의 원인이나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밝히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글 전반에 걸쳐 가장 주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글에서 가장 주되게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함.	2점	총 4점
이 글의 주제를 알맞게 파악하여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6** (다)에서는 분석을 사용하여 태양 빛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바이올린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도 분석의 방법이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정의, ③ 구분 예시, ④ 인과, ⑤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라)는 예시를 사용하여 색깔이 결정되는 원리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고, (마)는 대조와 인과를 사용하여 검은색 물체와 흰색 물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왜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이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 08** 검은색 물체가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검정 테이프가 햇빛과 선수의 피부에서 반사된 빛을 흡수함으로써 눈에 도달하는 빛이 줄어들고, 선수들이 눈부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검은색의 특성과 관련지어 적절히 서술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9** 독도는 해저 분지에 솟아 있는 거대한 산의 일부로, 서도와 동도, 89개 부속 도서를 일컫는 말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③ 독도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한다. ④ 서도가 동도에 비해 규모가 크고 해발 고도도 높다. ⑤ 독도의 정상부는 조면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응회암과 화산 각력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 10** 이 글에 독도의 이름에 담긴 뜻은 나타나 있지 않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독도는 돌이 많아 '석도'라고 불려 왔다. ③ (마)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④ 독도의 정상부를 구성하는 조면암과 안산암은 비교적 단단한 성질을 지닌다. ⑤ (라)에서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물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 11** (다)에서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도를 구성하는 암석을 설명하고 있고,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섬 정상부를 구성하는 암석과 나머지를 구성하는 암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ㄱ은 정의, ㄴ은 예시, ㄷ은 분석,

르 은 대조, ㅁ 은 분류와 구분의 설명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12 (라)는 구분과 예시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독도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마)는 정의와 예시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독도 주변 바다의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두 문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13 (나)에서 서도와 동도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인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의 중심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서술함.	2점	총 4점
(나)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알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4 설명하는 글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기보다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5 (마)에서는 눈물의 종류를 기본적 눈물, 반사적 눈물, 정서적 눈물로 소개하고 그중 정서적 눈물의 맛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나): 눈물의 뜻과 생성 및 배출 과정 ② (다): 눈물의 성분과 구조 ③ (라): 눈물의 역할 ⑤ (바): 우리 눈에 꼭 필요한 존재인 소중한 눈물

16 설명하는 글은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의 과정으로 쓴다.

17 글쓰이는 개요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눈물의 뜻’을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정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쓰기가 개요를 조정해 내용을 적절히 서술함.	3점	총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8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마련한 내용이 충분하고 적절한가?’를 점검하고, 수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고, 부족한 자료를 더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19 설명하는 글의 첫머리에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경험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20 독자가 눈물 기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눈물의 배출 과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나)에 관련한 그림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그림 자료를 추가할 적절한 문단을 알맞게 서술함.	2점	총 4점
그림 자료를 추가하는 이유를 적절히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21 글의 흐름상 ‘눈물의 성분과 구조’를 먼저 알고 ‘눈물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㉔은 문단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22 (다)에서 눈물의 구성 성분과 3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을 활용하였다.

23 (마)에서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포도당이 들어 있어 약간 단 맛이 섞여 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눈물은 98%의 물과 2%의 염류, 단백질, 효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이 글에서는 눈물의 다양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눈물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눈물의 구성이 아니다. ⑤ 각막과 결막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감염을 막는 눈물층은 두 번째 층인 수성층이다.

24 설명하는 글을 고쳐 쓸 때에는 감각적인 표현인지가 아니라 명확하고 어법에 맞는 표현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용의 짜임이 적절한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25 설명하는 글을 평가할 때에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니라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3회 p.93~98

01 ② **02** “제가 화분을 깬어요.”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숨길 수 있으므로 화분을 깬 주체인 자신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03** ①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② **09** ① **10** (가)는 직접 인용, (나)는 간접 인용을 사용했다. 직접 인용을 사용하면 생생한 느낌을 주고, 간접 인용을 사용하면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11** ③ **12**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탐방 예약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로 고쳐야 한다. ‘보여진다’는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해서 사용한 과도한 피동 표현이기 때문이다. **13** ② **14** 해나는 자신이 아파서 힘들다는 것에 정우가 공감해 주기를 바랐는데 정우는 해나에게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15** ④ **16** ② **17** ⑤ **18** ④ **19** ④ **20**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이 저에게는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 ③ **22** ③ **23** ③ **24** ⑤ **25** ②

01 (가)는 행위의 주체를 감춤으로써 행위를 당하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②에서 ‘놀렸어요.’의 기본형인 ‘놀리다’는 사동 표현이다. ‘놀리다’의 피동 표현은 ‘놀림당하다’ 또는 ‘놀림을 받다’이다.

02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므로 자신이 화분을 깬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고,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알맞게 바꾸어 씀.	2점	총 4점
피동 표현의 특성과 관련지어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알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나)는 뉴스 보도 상황으로 ㉠과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건에 주목하게 하고, 식량난의 원인을 추정하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많은 사람 또는 전문가가 추정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 c와 d는 능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이다.
- 04** 피동을 만드는 방법 중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을 붙이는 방법, ‘-되다’, ‘-아/어지다’를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물리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물다’에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리-’가 붙은 것이다.
- 05** ㉠은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중 명사에 ‘-되다’를 붙이는 것인데, ‘드러나게 되었다’에서는 명사에 ‘-되다’를 붙이지 않았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06** <보기>에서는 식탁에 초점을 맞춘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식탁을 닦지 않은 주체인 종업원을 감추고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식탁을 닦아 달라는 요구를 전할 수 있고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07** ‘밝히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린다는 의미의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밝혀지다’는 능동 표현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피동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며 과도한 피동 표현이 아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쌓인’ ③ ‘발굴되었다’ ④ ‘믿기지/믿어지지’ ⑤ ‘자제해야로 고쳐야 한다.’

- 08**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모두 인용 조사를 사용한다. 직접 인용은 조사 ‘(이)라고’를 써서 표현하고,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한다.
- 09** 직접 인용 표현에서 ‘나’는 ‘경미’를 말하므로, 이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자신’이나 ‘자기’로 바꾸어야 한다.
- 10** (가)와 (나)는 같은 상황에 관해 쓴 글이다. (가)와 같이 직접 인용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있어 현장감이 잘 드러나고 생생한 느낌을 준다. (나)와 같이 간접 인용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글쓴이의 관점에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알맞게 구분함.	2점	총 4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표현의 효과를 알맞게 서술함.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1**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① ‘다음 주’를 ‘이번 주’로, ② ‘여기’를 ‘거기’로, ④ ‘저’를 ‘나’로, ⑤ ‘너’를 ‘나’로 바꾸어야 한다.

- 12** ‘보여지다’는 ‘보다’에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되어 만들어진 과도한 피동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잘못된 피동 표현을 바르게 고쳐 씀.	2점	총 4점
피동 표현을 고쳐야 하는 이유를 알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를 숨기고 그 의견이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효과를 주는 표현은 인용 표현이 아니라 피동 표현이다.
- 14** (가)에서 해나는 자신이 아파서 힘들다는 사실에 정우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정우는 해나의 감정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라며 조언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해나와 정우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맞게 서술함.	2점	총 4점
해나와 정우의 입장을 각각 알맞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5** 정우에게는 친구의 감정과 처지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조언해야 한다. 이때 상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공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16** 공감하며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거나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말해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은 해나가 계단을 내려올 때 서둘렀기 때문에 다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므로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다.

- 17** 공감하며 대화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친밀감을 갖게 되고, 상대가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상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문제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끔 돕는 것은 아니다.

- 18** (가)에서 아빠와 정우 중 한 명의 잘못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자신과 상대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며 말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 아빠는 정우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정우에게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 20**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정우가 아빠에게 바라는 것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이해이므로 이 점이 잘 드러나야 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우가 아빠에게 바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남.	2점	총 4점
아빠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문장으로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1** 유진은 먹는 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음식만 먹는 식사 문화가 익숙한데, 음식을 모아 함께 먹는 것이 익숙한 경우와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 22** 정우는 음식을 모아 함께 먹는 식사 문화에 익숙해서 유진과 같은 메뉴인 감자튀김을 한곳에 모아서 먹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므로,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말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3** ‘나’를 주어로 하는 ‘나 전달법’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느낌을 알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에 대한 설명이다.
- 24** 비폭력 대화법으로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해야 한다.
- 25** ㉠, ㉡, ㉢은 ‘나’를 주어로 하는 ‘나 전달법’이자 비폭력 대화이다. ㉣, ㉤은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이다.

● **실전 모의고사 4 회**

p.99~104

01 ① **02** ④ **03**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8** ① **09** ⑤ **10** ③ **11** 구린내가 향기롭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12** ① **13** ⑤ **14** ④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오래 살고자 욕심을 부리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23** ② **24** ④ **25** 역설, 역설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01** (가)에서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반대되는 말인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어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나)에서는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다’와 같이 모순되는 표현 속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라는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 02** (나)의 화자는 꿈이 있기에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가)의 화자는 ‘당신’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가 ‘당신’을 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으며 ‘당신’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이 시에서 화자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속마음을 반어를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내고,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구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을 서술함.	2점	총 4점
반어의 표현 효과를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은 화자가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05** 이 시에서는 ① 반복, ② 대구, ③ 가정, ④ 반어가 사용되었다. ⑤는 설의로 이 시에는 쓰이지 않았다.
- 06** (가)의 화자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보기>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의지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며 이별을 수용하는 것처럼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미래의 재회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공통점으로 볼 수는 없다.
- 07** (가)의 화자는 ‘당신’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도 겉으로는 그리지 않다고 하면서도 ‘당신’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 보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이 시의 1~3연은 전반부, 4~6연을 후반부로 볼 수 있으며 내용 구조가 유사하다.
- 09** (나)의 6연에서 “아직 멀었”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10** (나)에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역설을 사용하면 모순된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모순된 표현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고,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② 설의, ④ 풍자, ⑤ 반어의 효과이다.
- 11** ㉠에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나타나 있다. <보기>에서 ‘구린내가 향기롭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역시 역설의 방법을 활용하여 은행나무 열매와 밤송이를 보호하는 구린내와 가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12** (가)에는 반어가, (나)에는 역설이 쓰였다.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화려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역설이 아니라 반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13** ㉤에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나타나 있다. ⑤는 바른 생활을 하는 ‘너’를 바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반어가 쓰였다.
- 14** 이 글에서 비판의 대상은 장어 영감과 그 가족으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15** 이 글에서는 장어 영감과 그 가족을 풍자를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풍자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기, 비꼬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등의 방식으로 에둘러 비판하는 방법이므로, 작가가 비판의 대상인 장어 영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 했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6** 장어 영감은 슈퍼 달팽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희생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오래 살고 싶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류이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동물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한다.
- 17** @은 압박기로 슈퍼 달팽이의 껍데기를 깨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치는 모습으로 장어 영감 가족의 반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18** 장어 영감의 가족들 모두 슈퍼 달팽이를 깨서 먹으려 하는 것으로 보아 장어 영감 때문에 억지로 먹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9**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풍자가 나타나 있다. 풍자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에둘러 비판하는 것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②, ⑤ 이 글의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 <보기>의 시적 대상을 비교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①, ③ 이 글의 작가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고, <보기>의 작가는 습관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20** 이 글에서는 장어 영감과 그 가족들이 슈퍼 달팽이의 껍데기를 깨려다가 다치는 장면에서, <보기>에서는 용왕이 토끼의 거짓말을 듣고 토끼를 풀어 주며 병을 고칠 방법을 묻는 모습에서 풍자가 나타나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장어 영감과 그 가족들이 오래 살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슈퍼 달팽이의 목숨을 가버리 여기는 모습이, <보기>에서는 용왕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의 목숨을 가버리 여기는 모습이 풍자되고 있다.
- 21** (나)에서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들은 오래 살고 싶은 욕심에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다 오히려 다치고 있다. 욕심부리다 다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표현한 속담은 ⑤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거듭해서 일어남. ②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행동을 비꼬는 말. ③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태도. ④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빈다는 말.

- 22** 이 소설에서 비판의 대상은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이다. 장어 영감과 그의 가족이 오래 살고 싶은 욕심에 슈퍼 달팽이를 잡아먹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다치

는 모습에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오래 살고자 욕심을 부리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풍자를 사용하여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서술함.	2점	총 4점
풍자를 사용하여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바르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3** (가)에서 글쓴이의 손에 남은 흉터는 어린 시절 가난한 형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글쓴이는 자신의 흉터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어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직장 선배의 말로 인해 자랑스러운 흔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 25** 겉으로 모순된 표현인 역설을 사용하여 그 이면에 담긴 이수필의 주제인 어려움을 극복해 낸 흔적이 아름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표현 방법을 2글자로 제시함.	2점	총 4점
효과를 <조건>의 형식에 맞게 제대로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me 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title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